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 연구

## -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을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박 춘 향

#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 연구

## -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전 형 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박 춘 향

박춘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김 진 공 (인)

부위원장 이 정 훈 (인)

위 원 전 형 준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루쉰(魯迅)의 대표작 「아Q정전(阿Q正傳)」의 초기 중한번역가 양백화(梁白華), 정래동(丁來東), 김광주(金光洲)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중한번역을 검토한 연구이다. 분석의 대상을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으로 삼은 이유는 기존의 「阿Q正傳」 중한번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번역본에 집중되어 중한 초기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이고, 한중일 격변기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가로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과정은 루쉰 소설에 대한 중한 초기번역양상, 더 나아가 중국문학의 한국어번역을 살펴보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성장 및 교육과정, 번역활동에 대한 전기적 고찰과 그들의 「阿Q正傳」 번역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성장 및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중일 격변기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사상적 궤적, 언어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들의 문학의식과 번역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량치차오(梁啓超)의 계몽의식과 옌푸(嚴復)의 신달아(信達雅) 번역원칙이 양백화의 중국문학 번역에 미친 영향,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이국화(異化) 번역관이 정래동의 번역활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김광주의 자국화(歸化) 번역태도가 김광주의 번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기존 전기적 서술 중의 오류를 찾아 향후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능한 번역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먼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아Q정전」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사례 분석하였다. 분명한 오역 즉 번역의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번역차이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로부터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일정한 유형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여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 번역가의 상이한 번역관이 그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고찰하였고, 특히 김광주에 대한 번역 관련 평판이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보다는 추측이나 풍문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의 특징을 총 570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연구 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방식을 양백화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정래동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김광주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등 세 가지 검증 방식을 병행하여 추출검사를 진행하였다.

한문 실력이 탁월했으며 고전문학 번역원칙은 嚴復의 信・達・雅를 계승하였고 신문학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胡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양백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울러 배우고 옌푸(嚴復)의 信을 중시하여 직역을 선호한 정래동, 16년의 중국생활로 백화문이 뛰어나지만 한문이라는 한계에 자국화(歸化) 번역을 선호한 김광주, 세 번역가의 번역 작품 선정, 번역 특징의 차이에는 시공간적 요소와 번역관이 작용했다.  양백화는 계몽적인 의식에서 루쉰과 가장 근접했고 정래동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서 루쉰과 가장 닮았으며 김광주는 “절망”과의 거리에서 루쉰과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중한번역, 루쉰, 아Q정전,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학  번 : 2013-22428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4

제 3 절 연구 방법 ····· 12

제 2 장 각 번역가에 대한 전기적 고찰과 번역관 · 13

제 1 절 양백화 ····· 14

1. 성장과 교육과정 ····· 15

2. 계몽주의와 역술(譯述) ····· 18

제 2 절 정래동 ····· 27

1. 성장과 교육과정 ····· 27

2. 원문에서 충실성과 직역 ····· 32

제 2 절 김광주 ····· 37

1. 성장과 교육과정 ····· 38

2. 자국화 번역과 문학의 번역 ····· 42

제 3 장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에 대한 고찰 ····· 48

제 1 절 사례를 통한 비교 검토 ····· 49

1. 양백화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 50

2. 정래동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 54

3. 김광주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 59

제 2 절 중한 초기 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 ····· 62

1. 언어의 문제 ····· 63

2. 문화의 문제 ····· 65

3. 의도와 해석의 문제 ····· 70

제 3 절 번역가별 번역의 특징 ····· 72
1. 양백화 번역의 특징 ····· 73
2. 정래동 번역의 특징 ····· 74
3. 김광주 번역의 특징 ····· 75

제 4 절 결론 ····· 76

참고문헌 ····· 81
Abstract ····· 87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양백화(梁白華, 1889~1944), 정래동(丁來東, 1903~1985), 김광주(金光洲, 1910~1973)의 「阿Q正傳」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魯迅(1881~1936)의 대표작 「阿Q正傳」(1921)이 발표된 후 40년 동안 나온 한국어 번역본은 양백화 완역(1930), 정래동 부분 번역(1930~1931), 김광주 완역(1946)의 셋이다. 이후 60년 간 120편의 번역본이 출판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당시 「阿Q正傳」의 번역본이 적은 이유는 번역 난이도가 魯迅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1]. 일반적으로 魯迅은 古文 실력도 뛰어나고 현대의 백화문에도 능숙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魯迅 소설의 언어적 특징은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표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 함축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문장 하나 없이 간결하고 적재적소에 정확한 표현만을 사용하는 魯迅의 언어특징은 「阿Q正傳」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하여 「阿Q正傳」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 실력과 백화문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따라서 『阿Q正傳』의 초기 번역에 착수한 양백화(梁白華, 1989~1944), 정

1) 류수인도 1929년 무렵 「아Q정전」의 번역을 시도한 바 있었고, 정래동도 “나는 중국어를 대강 알아보면서부터 「아Q정전」을 이제나저제나 번역을 하여볼까 하고 가끔 魯迅의 단편소설집 『납함(吶喊)』을 빼어들었으나 그 문장이 난삽하고 해학이 심각하고 중국어에 특유한 쌍관어 (雙關語, Pun)가 많아서 어떻게 조선말로 전달할 수가 없어서 도로 서가에다 꽂아놓은 적이 비단 一 二次뿐만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 (홍석표, 「譯述의 번역 관습과 근대적 번역관습의 충돌」, 『중국문학』 第75輯(2015), 10쪽.)

래동(丁來東, 1907~1985), 김광주(金光洲, 1910~1973)는 魯迅 문학 초기 번역가로서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阿Q正傳」에 대한 번역은 1960년대에 가서야 재개되므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번역은 그 이후의 「阿Q正傳」번역에 있어서 초기 저본 역할을 하는 참고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세 명의 번역가에 대한 연구는 더 크게는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의 전반적인 수준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언어별 「阿Q正傳」의 초기 번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阿Q正傳」의 초기 번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원문과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 정확성과 완결성의 실증적인 비교 검토보다는 번역자의 이력과 교육 및 언어 수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번역자의 이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번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魯迅 소설에 대한 번역은 번역 행위에 있어서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독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魯迅 소설 번역의 변천사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는 「광인일기』[2]에 대한 번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기별, 역자별 번역에 대한 분석은 실증적인 번역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27년 유수인에 의한 번역을 시작으로 2021년 전형준에 의해 번역된『광인일기』의 마지막 구절 "救救孩子……" 에 대한 번역을 살펴보면 원문은 겨우 4자에 불과하지만 다음과 같이 번역자의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救救孩子……"

아이를 건지자 …… (유수인, 1927)[3]

아이들을 지지자…… (유수인, 1935)[4]

---

2) 魯迅, 『狂人日記』, 『新青年』,1918.05.

3) 魯迅, 청원(青園, 유수인) 역, 「광인일기(狂人日記)』, 『동광』. 1927년 08월.

4) 1935년 06월 01일 삼천리 제7권 제5호에 다시 실린 유수인이 번역한 「광인일기

아이들을 구하자 …… (김시준, 1989)[5]
아이들을 구하라 …… (전형준, 1996)[6]
아이들을 구해야겠다 …… (김태성, 2011)[7]
아이들을 구해야 할 텐데 …… (루쉰전집번역위원외, 2018)[8]
아이들을 구해야 할 텐데 …… (이주노, 2019)[9]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김택규, 2020)[10]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 (전형준, 2021)

語幹은 변함이 없는데 어미가 서로 달라 종결 어미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연결 어미형으로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감정적 층위에서 보자면 역자의 선택에 따라 호소형이나 권유형, 다짐형, 모순형이 되기도 한다. 이 많은 차이들은 가능한 번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자의 다양한 선택에서 주로 비롯되지만 오독과 오역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능한 번역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오역부터 파악해야 하고, 언어의 不可譯性, 오역과 가능한 번역 사이의 경계, 그 경계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분명한 오역과 함께 조심스럽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바, 120여 편에 이르는 『阿Q正傳』 한국어 번역본에서 초기 번역에서 나타났던 양상들이 유사하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중국문학 초기 번역을 대표하는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추출방식을 통해서 세 명의 번역을 비교분석 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번역차이의 양상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로부터 번역의 문제점에 대

(狂人日記)』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문장의 번역이 바뀌어 있었다.
5) 魯迅, 김시준 역 『루쉰 소설 전집 1』 (서울, 중앙일보사, 1989)
6) 루쉰, 전형준 옮김, 『아Q정전』(서울: 창비, 2007)
7) 루쉰, 김태성 옮김, 『아Q정전』(서울: 열린책들, 2011), 35쪽.
8)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아Q정전』(서울: 그린비, 2018), 43쪽.
9) 魯迅, 이주노 역 『루쉰의 광인일기, 식인과 광기—권위와 관습적 읽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다시 읽는 광인일기』(서울: 21세기북스, 2019)
10) 루쉰, 김택규 옮김,『아Q정전』(푸른숲, 2020), 29쪽.

한 일정한 유형적 인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번역가의 생애와 이력이 번역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성장과정, 교육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생애와 이력을 재조명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 번역가의 언어적 구성 및 자질에 대해 고찰하고 각자의 담론과 번역활동을 기반으로 시대적 격변에 따른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사상의 궤적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 번역가가 어떤 번역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번역관이 각자의 번역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시도는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선행 연구의 검토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는 魯迅의 중편소설 「阿Q正传」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와 「阿Q正传」의 중한번역 초기 번역가로 분류되는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 각각에 대한 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魯迅 「阿Q正传」의 한국어 번역 관련 연구로는 시대별 번역특징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 언어학적 차원에서 다룬 오역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다룬 문화소의 번역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다.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역자별, 장르별, 시기별로 나누어짐과 겹침의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阿Q正传」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阿Q正传」 번역의 시대적 특징에 따른 오역의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 백은희(2001)[11]는 1980~90년대에 출간된 총 5편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오역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金兰(2006)[12]의 경우 1950년대부터 1980년대

11) 백은희, 「중한번역에 나타나는 오역의 유형 분석」, 『中國學報』第四十七號, 2001년, 111-131쪽.
12) 金蘭, 『魯迅「阿Q正傳』的朝（韓）語譯介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까지 총 8편의 「阿Q正传」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중국의 1950년대 번역본과 한국의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제 번역본의 오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徐静静(2010)[13]은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 총 5편의 「阿Q正传」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시대별 번역 특색과 번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韩银华(2015)[14]은 2013년에 발간된 총 3편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언어학적 번역 특징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阿Q正传」의 가장 많은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화(2021[15])는 1970년대 이후 총 35편의 「阿Q正传」 한역본을 대상으로 번역의 시대별 특징과 오역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상기 논문은 모두 언어학적 차원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두 번째, 국내에서는「阿Q정전」번역 중 문화소와 관련된 번역을 살펴보는 연구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전기정(2008)[16]은 2000년대 이후의 「阿Q정전」 번역본에서 문화소가 실제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번역 양상과 번역전략에 대해 제시하였다. 張博文(2019)[17]은 「阿Q정전」에 나타나는 문화소를 분류하고 그 유형별 문화소의 한국어 번역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고, 서문첩(2021)[18]은 2000년대의 총 4편의 「阿Q正传」 번역본을 대상으로 문법차원의 번역투와 문화요소와 관련된 번역투에 대해 분석하였다. 상기 논문은 어학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자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

년 5월.

13) 徐靜靜, 『「阿Q정전」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고찰』,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0년 4월.

14) 韓銀華, 『「阿Q正傳」与三个韓譯本對比分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15년 6월.

15) 서화, 『魯迅 "阿Q정전" 벅역 연구』, 동의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21년 2월.

16) 전기정,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 전략-阿Q정전"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51號, 2008년 8월, 275-299쪽.

17) 張博文, 「중한 문학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阿Q정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년 2월.

18) 서문첩, 「中韓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연구-"阿Q정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년 2월.

볼 수 있다. 양백화의 존재확인은 1960년대 북한문학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19]. 반면에 한국문학사에서는 1976년(李錫鎬)[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양백화의 문학에 대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북한 문학 관련 "해금조치"[21]와 더불어 1980년대 말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22] 양백화의 번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축적된 주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크게 불교 관련, 희곡 및 고전문학 관련. 신문학 관련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불교와 문학과의 영향 관계에 착안하여 양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국내 연구자로는 고재석, 김종진, 유봉희를 들 수 있다. 고재석(1989)[23]은 불교거사와 소설가로서의 양백화의 삶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

---

19)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번역가 양백화가 아닌 소설가 양백화에 주목하여「슬픈 矛盾」(1918)을 1910년대 사회주의문학의 기본 특징을 구현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고재석,「백화 양건식 문학연구(1)－3·1운동 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제12집), 1989. 2쪽 참조.)

20) 이석호,「중국문학 전신자로서의 양백화-특히 중국 희곡의 소개번역을 중심으로」,『연세논총』 제13집, 1976

21) 유임하,「해금조치 30년과 근대문학사의 복원」,『泮橋語文硏究』제50집, 2018. 75~76쪽.

22)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학계에서 북한 문학에 대한 해금조치가 실시되면서 1910년대 문학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게 되었고, 더불어「슬픈 모순」의 작가 양건식도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동신,「양건식의 중국어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쪽.)

23) 고재석은 1886년(고종 2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명문귀족 공립학교인 육영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립일어학교, 관립한성일어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연원과 변천사를 통해 양백화의 성장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거사불교운동시기 주변의 핵심인물인 李能和, 朴志淵, 韓龍雲과의 만남을 통해 菊如 居士로서의 梁建植의 삶, 근대 지식인 특히 이광수, 최남선 등을 대표로 한 조선시대 문인들과의 교유관계를 통해 白華 梁建植의 단편소설가로서의 삶을 조명하였다. 또한 양백화의 창작소설「석사자상」,「미의 몽」,「슬픈 모순」,「엷고 힘없고 간절한 동정」 등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재석이 바라본 양백화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종교적 구원"에 대해 논술하였다. 일본 동경에 체류 중이었던 이광수를 향한 양백화의 부름이자 응답이기도 한「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1918년에 이능화가 발간한 불교기관지『조선불교총보』를 두고 왜 한용운의『유심』에 투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다. 양백화의 문학에 대한 연구사에서 고재석(1989)의 논문은 이석호(1976), 박재연(1988)의 논문과 함께 초기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연구에 초석이 될 만한 기초 작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종진(2019)은 『불교』지를 중심으로 이응섭, 김태흡과 비교하여 양백화의 번역문학을 연구하였다. 유봉희는 2016년에[24] 양백화의 사상적 가치에 대한 연구, 2018년에[25]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 진화론 수용이 이해조·이인직과 양백화·이광수에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났는지 대해 분석하였으며 2020년에[26]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양백화의 사상적 가치와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희곡 및 고전문학과 관련하여 양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로는 이석호, 박재연, 최용철, 정선경, 동신, 박진영이 주목할 만하다. 이석호(1976)[27]는 중국희곡과 소설에 대한 양백화의 번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양백화의 飜譯文體에 주목하여 용어선택에 고심한 흔적[28]을

---

24) 유봉희는 양백화의 「西哲康德格致學說」이 중국의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1903년에 쓴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을 번역한 것임에 주목하여 한·중·일 동아시아 진화론 수용을 논할 때 불교계에서는 일본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중국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한국 한용운(韓龍雲, 1879~1944) 등의 계보의 선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노우에 엔료의 국가주의는 량치차오의 계몽주의와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량치차오가 이노우에 엔료의 국가주의에 기초한 '불교적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유봉희의 주장에 따르면 량치차오는 이노우에 엔료의 근대적 불교해석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일 뿐 그의 강고한 국가주의에는 거리를 두었고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았던 양건식의 진화 사상 또한 이노우에 엔료와는 차이를 드러냈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이노우에 엔료보다는 키요자와 만시(淸澤滿之, 1863~1903)를 상정할 때 양건식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체계가 더욱 선명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유봉희, 「양건식(梁建植) 사상과 문학의 총체성①－인물에 비춰 본 양건식 사상 궤적의 윤곽」, 『한국학연구』 제59집, 258~260쪽 참조.)

25) 유봉희,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진화론 수용의 계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소설①－애국계몽기 이해조·이인직과 1910년대 양건식·이광수의 산문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제51집, 2018, 181~229쪽.

26) 유봉희, 「양건식(梁建植) 사상과 문학의 총체성①－인물에 비춰 본 양건식 사상 궤적의 윤곽」, 『한국학연구』제59집, 2020, 251~286쪽.

27) 이석호는 양백화가 번역한 「桃花扇」(1923), 「琵琶記」(1927), 「四絃秋」(1928), 「卓文君」(1931), 「潘金蓮」(1932), 「말괄량이」(1932), 「荊軻」(1935) 등 방대한 양의 희곡이 「西廂記」(1925)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최초의 번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28) "그때 이미 번역된 『서상기』 버전이 많았는데 모두 옛날 新小說의 문체가 아니면 原文에 懸吐注解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때에 白華가 最新型의 文體로 특히 現代劇 體裁로 脚色한 現代版 「西廂記」의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p.8)(중략) 양백화는 『비파기』 下場時 每行 끝이 「에라만수1라는 後斂을 붙인 것 등이 매우 재밌다(p.3)"(이석호, 위의 논문, 8쪽, 3쪽)

찾아낸 첫 연구자이기도 하다. 박재연(1988)[29]은 현대희곡과 현대소설의 번역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양백화의 대표작 『슬픈 矛盾』(1918)에 대한 연변문학사의 평가[30]를 인용한 점, 『개벽사(開闢社)』에서 펴낸 중요한 앤솔로지『중국단편소설집』(1929.1)의 역자[31]에 대해 관심을 보인 첫 연구자라는 점, 양백화의 문학세계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제1기를 1915년부터 1919년 3.1운동 때까지, 제2기를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제3기를 극도의 생활고[32]로 인해 『매일신보』에 취직한 1934년부터 질환으로 절필을 하게 되는 1939년까지로 정확하게 구분 지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양백화의 문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총체적인 파악[33]이 어려웠을 것이다.

양백화의 속문학[34]과 평론, 현대희곡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학계, 일본학계와의 영향관계에 주목한 연구 성과로는 최용철(1993)의 「『홍루몽』평론과 번역문 연구」, 정선경(2012)의 「『西遊記』,『紅樓夢』,『水滸傳』,『三國演義』을 중심으로 한 양건식의 중국고전소설 번역과 수용에 관하여」, 양백화의 평론을 대상으로 일본의 중국문학 연구 저서에 대한 실증적인 비교 고찰을 진행한 동신(2011)의 「양건식의 중국 속문학 연구」, 박진영(2015)의 「양건식의 『인형의 집』번역과 『사랑의 각

---

29) 박재연, 위의 논문, 1988.

30) 위의 논문, 252쪽.

31) “梁白華 외”에 “河東鎬, 『韓國近代文學의 書誌硏究』(깊은 샘, 1981.11), p.25 참조)”라는 각주를 덧붙여 훗날 연구자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32) “누구나 할 것 없이 문필생활자는 궁하였지만 백화도 어지간히 궁하였다. 하루는 저녁 쌀이 없으니 2회만 꼭 어떻게 원고료로 변통해 달라고 나한테 졸랐다”. (조용만,「백화의 음서벽」, 『양백화문집3』, 1995, 354쪽.)

33) “박재연의 연구 성과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양백화의 창작소설과 번역소설, 희곡, 평론 및 야담 등의 글들이 모아져 『양백화 문집』(1988), 『양백화 문집』(1995)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최용철,「梁建植의 中國文學 硏究와 飜譯에 대하여」 ,1996.)

34) 여기서 속문학은 중국 속문학에 대한 정진탁(鄭振鐸) 정의— "속문학이란 통속적인 문학이며, 민간의 문학이며, 또한 대중의 문학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른바 속문학이란 대아정당(大雅之堂)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서, 선비들이나 사대부들에게 중시되지 못하고 민간에 유행되면서 대중들이 애호하던 문학"(鄭振鐸, 『中國俗文學史』(上) , 上海書店, 1984, 1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중국 고전 소설 및 고전 희곡을 가리킨 것이다.

성』」 등이 있다.

정래동에 관한 연구는 양백화의 연구에 비해 지극히 적은 편이다. 정래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래동의 중국신문학 인식과 전파에 관한 연구가 주류가 되어 1920~30년대 중국 문단의 현장 경험자 및 수용자로 정래동을 자주 소환되고 있다[35]. 그 다음으로는 정래동의 중국문학 번역에 관한 연구이다. 정래동의 번역 관련 주요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남용(2007)[36]은 정래동, 이육사, 임학수, 윤영춘의 현대시 번역에 대하여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金哲・徐靜靜(2009)[37]은 정래동의 베이징생활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정래동의 소개와 번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방평(2011)[38]은 정래동의 중국현대문학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방평은 정래동의 베이징유학과 활동, 중국현대문학의 소개와 비평, 중국현대문학의 번역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정래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어 김광주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동안 국내에서는 김광주의 상하이 생활과 문학창작을 분석하거나 김광주의 문학텍스트를 당시 상하이라는 국제도시의 '모던 표상'이나 다기(多岐)한 시선과 주체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시도가 있어왔다.[39] 예컨대 최병우(2008), 서은주(2008), 朴姿映(2013), 진선영(2013), 이양숙(2017) 등이 그것이다.[40] 그 외에도 김광주의 아나키즘 인식과 관련 지어 연구를 시도한

35) 중국 현대문학의 국내 수용과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재령, 「20세기 초반 在中留學生 丁來東의 신문학 인식과 전파」, 『歷史學硏究』 제82집, 2021; 송인재, 「1920, 3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신문화운동 수용－양건식, 정래동, 김태준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제63집, 2015; 박남용·윤혜연, 「일제시기 중국현대소설의 국내 번역과 수용」,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4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8. ;송인재, 「1920~3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신문화운동 수용 양건식, 정래동, 김태준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3집,(2015, 11).

36) 박남용, 「중국 현대시의 수용과 번역」, 『중국학보』제56집, 2007.

37) 金哲・徐靜靜, 「中國現代文學的傳信者丁來東」, 『當代韓國』冬季號, 2009.

38) 방평, 『정래동(丁來東) 연구-중국현대문학의 소개와 번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9) 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魯迅) 소설의 번역」, 『中國文學』(第87輯), 2016, 76쪽 참조.

40) 홍석표(2016), 위의 논문, 76쪽 참조.

논문도 보인다[41]. 김광주의 번역에 관한 논문으로는 박남용・윤은혜(2009)의 「金光洲의 중국 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홍석표(2016)의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魯迅) 소설의 번역」, 그밖에 중국문학의 수용사적인 측면에서 다룬 엄진주(2020)의 「한국현대문학의 중국현대소설 수용사 연구-해방이후부터 한중 수교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등이 있다. 허나 기존의 논문들은 시인이자 소설가로서의 김광주의 삶에 초점을 맞출 뿐 김광주의 「아Q정전」번역에 대해서는 연구범주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신문학과 관련된 번역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가 자주 동반하여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서경민(2014)의 「梁白華의 중국현대문학 수용과 번역에 대한 연구－현대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박진영(2014)의 「중국문학의 발견과 전문 번역가 양건식의 초상」,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 —번역가 양건식과 박태원의 원근법」,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王艷麗(2019)의 「白華 梁建植의 중국 현대문학 번역 · 수용에 대한 재고찰」, 박진영(2014)의 등이 있다. 그 외에 박남용・임혜순(2009)[42]은 일제시기 중국 희곡을 중심으로 양백화, 정래동, 최창규, 김광주 등의 번역과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고 왕넝(2013)[43]은 양백화와 정래동의 1920~1930년대 평론과 수필을 연구대상으로 한중 문학적 상황과 그들의 문학관, 문학 및 예술 주장이 번역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주목하여 번역 작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단연 홍석표(2015)[44]가 돋보인다. 홍석표는 '譯述'(重譯)의 번역관습과 근대적 번역관습의 충돌에 대한 고찰을 통해 重譯과 오역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중국 소설 원

41) 김명섭,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 『사학지』(제52집)(2016.6)
42) 박남용·임혜순, 「일제시기 중국 현대희곡의 국내 번역과 그 특징 연구」, 『중국학연구』 제50집, 2009.
43) 왕넝, 『식민지시기 중국현대문학 번역자 양백화, 정래동의 역할 및 위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44) 홍석표,「'譯述'의 번역관습과 근대적 번역관습의 충돌—1930년대 초 梁白華의 「阿Q正傳」번역과 그에 대한 반응」,

본 「阿Q正傳」 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梁白華의 한국어 번역이 사실은 井上紅梅의 「아Q정전」 일본어 번역을 重譯한 것임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홍석표의 연구는 국내 「아Q정전」의 번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국내의 「아Q정전」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기존연구에서 대부분의 한국연구자는 1960년대 이후의 「아Q정전」 번역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연구자 또한 1950년대 이후의 번역본을 다루고 있다. 둘째, 식민지시대의 양백화, 정래동의 「아Q정전」 번역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해방 직후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은 거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阿Q正傳」 번역에 관한 시대별 연구, 번역에서 나타난 유형별 오역에 관한 연구, 문화소의 번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阿Q正傳」의 초기 중한번역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양백화의 번역에 관한 연구는 총체적인 파악보다는 파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류・수정・보완을 거듭하며 나선형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고 양백화의 출생지와 출신학교, 유학지(留學地) 관련 자료가 모두 부족하기에 양백화의 생애(生涯)에 대한 전기적 고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정래동와 김광주의 생애사적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정래동과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은 거의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阿Q正傳」의 최초 일본어 번역본인 이노우에 코베이(井上紅梅)의 「阿Q正傳」과 이를 저본으로 한 최초 한국어 번역본인 양백화(1930)의 「阿Q正傳」, 정래동(1930)의 「阿Q正傳」 번역, 해방 이후 최초의 번역본인 김광주(1946)의 「阿Q正傳」을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제 3 절 연구 방법

그동안 「阿Q正傳」의 한국어번역에 관한 시대별, 유형별 오역에 관한 연구, 문화소의 번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가 이뤄졌지만 「阿Q正傳」의 초기 중한번역, 즉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은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을 중심으로 초기 중한번역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번역주체의 특징에 따라 작품의 독해 및 번역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번역가에 대한 전기적 고찰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슐라이어마허(1768~1834)의 주장에 따르면 번역은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뿐이다. 번역가가 가능한 한 작가를 내버려두고 작가에게로 독자를 움직이거나, 독자를 가능한 그냥 놔둔 채 작가를 독자에게로 데려가는 것이다.[45]" 이를 연구자와 번역가, 독자와 저자의 관계에 적용시키면 연구자의 '번역가에게 다가가기'가 추가된다. 저자에게 다가가기가 번역가의 몫이라면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깊이 있게 번역가에게, 번역 작품에 다가가느냐는 오롯이 연구자의 몫이다.

번역가의 사상적 궤적에서 그 역자의 번역에 대한 태도가 보이고, 역자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번역 실력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지며, 시공간적 맥락과 언어외적 요소를 염두에 둔 연구에서는 결과에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에 대한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세 번역가에 대한 전기적 고찰이다. 또한 연령대와 자라온 성장배경, 교육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당연히 세 역자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도 다르다. 그러므로 그 연구 방법도 달리할 수밖에 없다.

---

45) Schulte, Rainer., and John Biguenet, editors,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논선』(동인), 2009, 67쪽.

하여 2장에서는 세 번역가의 성장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역자별 언어구성을 파악하고, 그 언어적 구성이 각자의 번역특징에 미치는 영향, 세 역자의 번역관이 번역활동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장르별로 고찰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중한 초기번역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에 대해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의도와 해석의 문제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가능한 번역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먼저 세 역자의 「阿Q正傳」 번역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오역 즉 번역의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번역차이의 양상을 분석하고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일정한 유형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자별 중심으로 한 추출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 번역가의 번역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세 명의 번역자에 대한 고찰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해 번역 작품 선정, 번역 특징의 차이에는 언어 외적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에 대해 재확인하고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가로서의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제 2 장 중국현대문학 초기 번역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전기적 고찰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식민지 시대의 양백화, 정래동의 「아Q정전」 번역과 해방 이후의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이 연구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앞서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세 명이 번역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

듯이 국내에서의 중국문학 번역에 관한 연구가 총체적인 파악보다는 파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번역활동은 번역자의 생애와 사회문화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번역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시간적, 물리적 경험과 사회적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번역자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떤 의도로 번역에 반영했는지를 유추하여 번역활동의 관계 정립과 새로운 의미 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번역자의 생애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번역자의 위치와 역할을 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세 명의 번역자가 어떠한 상황에서「아Q정전」번역을 했고, 어떠한 문화적 배경이 번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번역자 마다 그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내 중국현대문학 번역사에서 위치를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 제 1 절 양백화

양백화(梁白華[46], 1889~1944)는 1920년에 魯迅과 胡適, 郭末若을 처음 한국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47]. 1944년 2월 8일『매일신보』는 양백화의 부고를 전하며 그를 평하여“중국문학의 권위”라 하였다. 양백화를 일컬어 이광수(1892~1950)는 “朝鮮 唯一의 中華劇 硏究者요 飜譯者”라고 칭하였고[48] 1932년 『文藝月刊』에서는 양백화를 “中國文學의 唯一

46) 평론 「胡適氏를 中心으로 한 中國의 文學革命」(『개벽』,1920.11~1921.2)은 양백화가 일본학자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의 평론 「胡適を中心に渦いてある文學革命」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 신문학혁명 및 현대문학을 소개하는 최초의 글로 전해진다.

47) 평론 「胡適氏를 中心으로 한 中國의 文學革命」(『개벽』,1920.11~1921.2)은 양백화가 일본학자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의 평론 「胡適を中心に渦いてある文學革命」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 신문학혁명 및 현대문학을 소개하는 최초의 글로 전해진다.

48) 李光洙, 「梁建植君」, 『開闢』 제44호, 1912년 4월.

한 巨匠”으로 기록하고 있다[49]. 서구문학에 대한 傾倒 현상이 만연해 있을 때 양백화는 동양과 서양, 종교와 철학,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소설, 희곡, 시, 평론과 수필 등 영역을 아우르며 창작과 번역 활동을 이어갔다. 1918년 양백화는 한국 최초로 현대어로 번역한 중국소설「홍루몽(紅樓夢)」[50]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고 중국의 희곡 명작 「도화선(桃花扇)」,「왕소군(王昭君)」, 「비파기(琵琶記)」, 「양귀비(楊貴妃)」 등을 한국에 처음 등장시킨 역자가 모두 양백화였다[51]. 양백화가 이뤄낸 이 모든 “최초”의 번역이 중국 전통문학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가 한창인 식민지시대의 산물이었음을 감안할 때 양백화의 행보는 계몽의식과 관련된 또 다른 의미망을 획득하게 된다.

### 2.1.1 성장과 교육 과정

양백화의 본명은 건식(建植)이고 號는 백화(白華)[52]이다. 1889년 5월에서 태어나 1944년 2월 7일 서울 홍파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수수께끼의 인물[53]”로 불렸던 이노우에 코베이(井上紅梅)의 생애 못지않게 양백화의 삶 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선 양백화의 출생지 미상으로 학계에서는 경기도 양주[54]설과 서

---

49) 「朝鮮文藝家名錄」, 『文藝月刊』 3號(1932.1.1.刊) 참조

50) 양백화는 1918년 3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간지『매일신보』에 한국 최초로 현대어로 번역한 중국소설「홍루몽(紅樓夢)」을 138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1921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人形의 家」를 4개월에 걸쳐 『매일신보(每日申報)』에 번역 연재하였다.

51) 李錫浩 ,「中國文學 轉信者로서의 梁白華 : 特히 中國 戱曲의 紹介 飜譯을 中心으로」,『延世論叢 Vol.13 No.1』, 1976. 참조

52) 양백화는 국여(菊如)와 국여거사(菊如居士), 백화생(白華生), 금래(今來), 노하생(蘆下生), 노하산인(蘆下山人), 성서한인(城西閑人), K.S.R., 천애(天愛), 천애자(天愛子) 등 다양한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가장 애용한 필명은 菊如와 白華였다. 1910년대에는 菊如를 많이 사용하였고 1920년대 이후는 白華를 많이 사용하여 본명보다 양백화로 많이 알려져 있다.

53) 「後藤朝太郎와 井上紅梅」의 저자 三石善吉(중국사학자)는 1970년대에 「シナ通(중국통)」 연구의 일환으로 이노우에 코바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의 생애는 의문투성이」, 「수수께끼의 인물」이라는 평을 내렸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勝山稔에 의해 검토 및 해명이 진행되고 있다.

54) 남윤수와 서지학자 김영복은 모두 양백화가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

울 탑동[55]설 두 가지로 전하고 있다. 양백화의 학력 또한 불분명한데 유력한 단서가 1935년 11월 1일 『삼천리』 제7권 10호에 등재된 '氏는 京城塔洞 출생으로 漢城官立學校를 나온 뒤 각지로 다년 유학 官吏生活 一時'란 한 줄 뿐인 까닭이다. 흥미로운 것은 양백화의 이력이 『삼천리』에 2회에 걸쳐 등장했다는 점이다. 1935년 11월부터 『삼천리』는 이광수, 정인섭, 염상섭, 양백화, 朴八陽, 李秉岐, 金台俊 등 문인들을 초대하여 일련의 「文藝講座」를 진행하였는데 양백화는 「李白과 杜甫」란 제목으로 2회에 나누어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1935년 11월 1일 제1강 (『삼천리』제7권 10호)에서는 李白에 대하여, 1936년 2월 1일 제2강(『삼천리』제8권 제2호)에서는 杜甫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2회 모두 필자소개가 "京城塔洞 출생"으로 되어있었다. 문인들의 필자소개는 투고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활자화되기 전에 잡지사에서 당사자에게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양백화의 이름이 1929년 11월부터 1936년 2월까지 『삼천리』의 지면에 자주 등장한 것[56] 으로 보아 당사자 확인도 수월했을 것이고, 설령 제1강에서 잡지사측의 편집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강에서 수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회 연속 등장했음에도 저자나 지인으로부터 의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기재된 저자의 이력에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타계한 지 50여년이 지나 유가족(義子)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 양주"설[57]보다는 동시대적으로 진행된 필자소개인 "京城塔洞"설[58]의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양백화의 漢城官立學校 시절로 돌아가 "한성한어학교 졸업"설, "이능화스승"설, "장지연 스승"설을 되짚어보도록 하자.

조선은 개화기에 이르러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졌고 통역관의 양성기관이 필요해짐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바로 한성외국어학교인데, 당시 대학을 세우지 못한 구한말에서는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가 가장 수준 높은 학교였다[59]. 양백화

---

주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족(義子 金興基)으로부터 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양백화 문집3』, 1995.3p; 『양백화문집3』, 1995. 359p 참조)

55) 『삼천리』 67호(1935.11)에 소개된 기록으로는 경성 탑동출신으로 되어 있다.

56) 양백화는 희곡 번역과 소설 번역, 평론, 수필과 좌담회 참여자로 『삼천리』의 지면에 꾸준히 등장했다.

57) 최용철,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연구사장편』(26),1996,575쪽; 서경민, 「梁白華의 중국현대문학 수용과 번역에 대한 연구—현대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쪽.

58)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와 번역문학—『불교』지를 中心으로 」, 『동악어문학』(79), 2019. 248쪽 참조.

59) 고재석, 위의 논문, 105쪽 참조.

의 학창시절 서울(漢城)의 官立 외국어학교는 총 6개였다.[60] 그중 양백화가 졸업한 학교는 관립일어학교(官立日語學校)[61]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 시기별로 官立日語學校(1895.5~1906.8), 官立漢城日語學校(1906.9~1907.12), 官立漢城外國語學(1908.1~ 1911.10)로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백화는 1904년 2월 官立日語學校에 입학하여 1907년 3월 31일 官立漢城日語學校에서 제9회 졸업생(35명) 중 한 명으로 졸업했던 것이다[62].

설립초기 관립일어학교에는 역관의 자제들이 많이 입학하였으나 점차 양반집 자제들의 입학이 많아졌다고 한다.[63] 과거제가 사라지면서 외국어학교에 조정의 내 노라 하는 실력자들의 자제가 많이 들어왔으며 그만큼 입시 경쟁률이 높았다고 한다.[64] 관립한성일어학교는 그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아 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이 정해지는 경우가 흔했다.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또한 변화가 따랐다.[65] 1902년 3월에 반포한 學部令에 따라 관립일어학교는 本科의 修業年限이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가[66] 1906년 8월 27일 「外國語學校令」에 의해 다시 3년으로 단축되었다. 양백화의 졸업시점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양백화의 재학시절 수업기간은 3년(本科)으로, 입학시점의 4년 2학기제에서 졸업할 즈음 3년 3학기제로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훗날 양백화가 「수호전(水滸傳)」을 번역하면서 일본어 역본의 오역[67]을 스스로 찾아낼 만큼의 일본어 실

60) 1891년에 서울 梅洞에 설립된 한성일어학교(日語學堂)와 1894년에 설립된 한성영어학교, 그리고 1895년 5월 10일 「外國語學校官制」가 公布되고나서 설립된 한성법어학교(1895), 한성아어학교(1896), 한성한어학교학교(1897), 한성덕어학교(1898) 등이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 후 한성아어학교(1896)는 폐지되고 나머지 5개 학교는 1906년 8월 27일「外國語學校令」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었다가 1911년에 폐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61) 앞서 언급한 조문제(1977)의 논문에는 관보(官報)·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람(一覽)·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 官員履歷書) 등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1895년에서 1908년까지 관립한성일어학교 119명의 졸업생 일람표가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양백화는 1907년 3월에 졸업한 35명 졸업생 중의 한명이다.

62) 조문제,「韓末의 日語學校敎育의 硏究-서울의 官立日語學校를 中心으로」, 『논문집』, 1977. 21~25쪽 참조.

63) 朱秀雄,「開化期の 韓國における日本語敎育に關する一 硏究(1)－開化期の日本語敎育」, 『京畿大學大學院論文集』第17号, 1985, 273-302쪽 참조.,

64) 김삼웅,「김삼웅의 인물열전/해공 신익희 평전4」(2021.8.11.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632,(검색일: 2121.12.31.)

65) 조문제,「韓末의 日語學校敎育의 硏究-서울의 官立日語學校를 中心으로」, 『논문집』,1977. 21~25쪽 참조.

66) 朱秀雄, 위의 논문, 273-302쪽 참조.,

67) “모사의 의촉(依囑)으로 「수호전(水滸傳)」을 번역하게 되어 일문(日文) 역본한

력은 바로 이때 관립일어학교에서 갖추었던 것이다. 졸업시점에 이르러 학교명칭 또한 官立日語學校에서 官立漢城日語學校로 바뀌었으며 설립 당시 관립한성일어학교는 서울의 주자동에 위치하였으나 1896년에 교동의 운현궁 맞은편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양백화의 스승으로 간주되어온 이능화가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학감으로 취임한 시점은 1908년 1월[68], 양백화가 이미 졸업하고 난 뒤이다. 두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지면에 나란히 등장한 것은 1912년 12월 26일 경성 박동(薄洞,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에 있던 각황사(覺皇寺) 포교당에서 거행된 석가세존 성도 기념식의 찬연[69]명단에서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06년 7월 11일 이능화가 지난 7일 私立日語夜學舍에서 金淳恒과 함께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70]가 발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私立日語夜學舍의 위치가 校洞 官立日語學校 내에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6년에 관립일어학교가 교동으로 이전하였고[71] 양백화가 졸업한 시점은 1907년 3월이다. 다시 말해 이능화가 1905년 12월 9일 私立日語學校를 수료하고 1906년 7월 7일 私立日語夜學舍를 졸업할 때까지 두 사람은 같은 공간, 서울 校洞의 官立日語學校 내에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인연이 한성한어학교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 2.1.2 계몽주의와 역술(譯述)

1910년대는 양백화가 불교의 진흥에 뜻을 품고 거사불교운동에 뛰어들었던 시기이다. 1915년 1월 1일 본산주지와 50여명의 거사가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양백화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양백화는 불교

---

둘을 참고해 보다가 기막힌 오역을 발견하고 혼자 웃음을 금치 못한 일이 있다"(『양백화문집3』(강원대학교출판부,1995), 197쪽)

68) 이능화(1869-1943)는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887년 3월 15일에 영어학교, 1892년 8월 12일에 한어(漢語)학교, 1896년 6월 30일에 관립한성법어(法語: 프랑스어)학교를 차례로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905년 12월 9일 이능화는 私立日語學校에서 수료하였고, 1906년 7월 7일 私立日語夜學校에서 졸업하였다.

69) 『조선불교월보』, 제1호, 1912. 2.

70) 「雜報」, 『대한매일신보』, 1906.7.11.

71) 「Ⅴ. 統監府의 교육 정책 14. 官立漢城外國語學校一覽」, 『개화기의 교육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2』, 1909.03.

진흥회의 전임서기로 『불교진흥회월보』,『조선불교계』,『조선불교총보』의 기자를 역임하며 창작과 번역, 대중포교활동에 매진했다. 첫 불교소설 「石獅子像」(1915)에 이어 「迷의 夢」(1915),「歸去來」(1915)는 『佛敎振興會月報』에 발표하였고 「閑日月」(1916), 「我의 宗敎」(1917), 「엷고 힘업고 懇切한 同情」(1917)등 작품은 『朝鮮佛敎界』에 게재되었다. 「悟!」(1918)는 『惟心』[72]에 게재되었는데 이는 한용운[73]이 발간한 잡지이다. 양백화의 대표작으로는 1918년 2월『半島詩論』제10호에 발표된 「슬픈 모순」(1918)을 꼽는다.

양백화의 시 번역은 1920년대 전반에 걸쳐있으며 고전시가, 신시, 불교시로 나뉜다. 1922년에 양백화는 郭沫若의 「봄 맡은 女神의 노래」를 번역하여 『東明』제70호에 발표하였다. 이어 1923년에는 『東明』제19호에 郭沫若의 「봄은 왔다」,「죽음의 誘惑」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郭沫若의 시에 대한 한국 최초의 번역이다. 같은 해에 胡適의 「登山」을 번역 소개하였고 『東明』 제20호에는 沈尹默의 「月」을 번역하여 내놓았고, 『東明』제38호에는 田漢의 「漂泊의 舞踊家」, 『東明』제2권 제20호에는 胡適의 「내 아들」, 『東明』제40호에 康白情의 「풀」을 번역 발표하였다. 1925년에 양백화는 『동아일보』에 郭沫若의 「地球 나의 어머니」을 번역 발표하였는데 이로써 1920년대 郭沫若의 시에 대한 초기번역은 총 4수가 되된다[74]. 1927년에는 『佛敎』제31호에 梁啓超의

---

72) 1910년 이회광이 주도하였던 원종(圓宗)이 일본 조동종(曹洞宗)과 '맹약(盟約)'을 체결하자 전불교계에서 그 반대 움직임으로 한용운, 박한영의 주도 하에 임제종(臨濟宗) 운동이 일어났다. 불교계는 북쪽의 원종과 남쪽의 임제종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불교의 정통을 지키고자 하였던 임제종은 총독부의 탄압으로 해산되었고 그 후 한용운이 불교청년의 계몽운동을 위해 발행한 잡지가 『유심(惟心)』이었다. 『유심』에 기고한 집필진을 보면 한용운을 비롯하여 박한영, 김남전, 백용성, 권상로, 강도봉, 이능화 등 당시 불교계에서 불교의 포교 및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한 주역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73) 한용운과 양백화 사이에는 스님 徐月華가 있었다. 1908년 4월 금강산 유점사에서 한용운에서 『華嚴經』을 가르친 스님이 徐月華였고, 1911년경 서울 수송동 각황사에서 양백화에게 『楞嚴經』을 가르친 스님이 영변 석왕사에서 새로 올라온 徐月華師으로 전해진다.(「인류를 구제하는 종교」, 『양백화문집3』, 1995. 104쪽.)

74) 「地球=나의 어머니」은 郭沫若가 1912년 12월에 창작한 新詩「地球，我的母亲！」를 번역한 것으로 1925년 1월 1일 『동아일보』 3면에 발표되었다. 『양백화문집3』(강원대학교출판부, 1995)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題宋石門羅漢像」 등 작품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작품선택에 있어서 시인들이 모두 중국 신문학사상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인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1926년에 양백화는 『新民』12호에 張若虛의 「春江花月夜」, 『朝鮮文壇』제17호에 佚名氏의 「孔雀東南飛」를 번역 소개하였는데 모두 명작인 것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백화는 1918년 3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3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한국 최초로 현대어로 번역한 「홍루몽(紅樓夢)」을 연재하였다. 「홍루몽(紅樓夢)」을 번역할 때 양백화는 독자들을 향해 "讀者 여러분은 아무리 滋味가 아직 없으시더라도 昨今의 본 소설을 주의하여 보시어 그 인명과 친척관계를 잘 기억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75]" 라고 호소와 소통을 하면서 번역을 이끌어 갔다. 1922년 양백화가 『동명』에 월나라 西施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 「빨래하는 처녀」(1922)를 연재할 때의 일을 덧붙이자면, "부인도 보시게 한문자를 너치 말아달라는 독자의 청구가 잇서 인제 순 조선문으로 쓰기로 하고..." 양백화는 한자를 거의 없애고 한글을 전용하였다[76]. 이 또한 양백화가 독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매우 중시했음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흔적은 양백화의 「三國演義」 번역에서도 잘 드러난다. 1929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양백화는 『매일신보』에 무려 859회를 연재하였는데 번역 저본은 毛宗崗本(120회)을 사용하였고 연재문에는 李承萬의 삽화가 들어있었다[77]. 「三國演義」 번역에서 양백화는 중국 고전소설 특유의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면서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순서를 뒤섞어놓거나 과감한 생략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번역방식은 훗날 만해 한용운[78]과 구보 박태원의 「三國演義」 번역에 많은 영향을 준 것[79]으로 알려져 있다. 양백화가 번역한 「三國演義」는 한국 최초의 현대어 완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

75) 『每日申報』 1918.4.18. (최용철, 「조선시대 『삼국지』와 『홍루몽』의 수용방식 비교」, 第78輯, 2016, 169~170쪽.)
76) 박재연, 위의 논문, 1988. 253쪽.
77) 최용철, 위의 논문, 168~168쪽 참조.
78) 홍상훈, 「양건식(梁建植)의 『삼국연의(三國演義)』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제14집, 68쪽.
79) 이애란, 「박태원의 중국 고전 번역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85쪽.

양백화가 번역한 고전희곡으로는 「도화선(桃花扇)」(1923), 「비파기(琵琶記)」(1927), 「사현추(四絃秋)」(1928)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모두 한국 최초의 번역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기(琵琶記)」(1927)를 살펴보면 양백화 번역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비파기는 南曲의 대표작으로 양백화의 번역은 文體가 現代譯이고 빈틈없이 역주[80]를 하였다. 「琵琶記」의 解題에 양백화는 「琵琶記」를 지은 저자의 動機, 背景, 上演法에 판본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양백화의 번역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그 歌詞대로 될 수 있는 限度까지는 原文의 音調에 彷佛하도록 飜譯하여 가려고 합니다"라는 구절도 보인다. "曲調·脚韻·字句·平仄이 보통 詩賦와 全然히 다른 歌劇인" 연유로 원문에 대한 忠實性이 어려운 경우, "原意를 傷치 않도록 意譯을 試"하였다고 밝혔다. 바꾸어 말해 양백화는 번역에 있어서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되 융통성 없는 축자역은 오히려 原意를 傷함을 알기에 경우에 따라 意譯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양백화는 "譯文은 다만 그 形을 總하고 그 神을 摹치 못하였으며 다만 그 言을 記하고 그 聲을 寫치 못한 때문에" 심히 부끄럽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양백화가 번역에 있어서 形似 뿐만 아니라 神似까지도 염두에 두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더 나아가 양백화가 形似보다 神似를 더욱 중요시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양백화의 이러한 번역관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번역가로 기록되고 있는 傅雷가 1951년 『「高老頭」重譯本序』에서 주장한 神似論과도 일맥상통하며 시기상으로도 훨씬 앞선 것이었다. 形을 넘어 그 神까지, 言을 넘어 그 聲까지 옮기고자 했던 양백화의 번역태도는 그가 얼마나 원문에 충실하고자 했는지의 정도를 보여준다. 또한 그의 의역이 언어의 不可譯性에 조우해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백화는 백화문으로 창작된 현대희곡도 많이 번역하였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1921년 1월 양백화는 국내 최초로 입센의 「人形의 家」를 번역하여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총 60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1922년 6월에는 『노라』(永昌書館)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1923년 3월에는 『사랑의 각성』이라는 단행본 희곡을 하나 더 내놓았다[81]. 비

80) 이석호, 위의 논문, 125쪽.

록 양백화가 후스의 「노라」를 중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해 단행본이 「人形의 家」에서 「노라」로 이름을 바꿔 출판되었을 때, 「노라」가 다시 단막극 「사랑의 각성」으로 재탄생했을 때 후스가 떠오르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후스가 「노라」(1918)를 번역한 그 다음해 3월 『新青年』에 단막극 「終身大事」을 내놓았고 양백화는 그 배경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양백화는 郭沫若의 「왕소군(王昭君)」(1932), 「탁문군(卓文君)」(1931), 王獨清의 「양귀비(楊貴妃)」(1931), 黎錦暉의 「포도선녀(葡萄仙子)」(1931), 田漢의「카풰의 一夜」(1932), 歐陽予倩의 「반금련(潘金蓮)」(1932), 「말괄량이」(1932), 熊佛西의 「畫家와 모델」(1932), 林語堂의 「途上의 孔夫子」(1932), 「형가(荊軻)」(1935) 등 희곡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상기 작품들이 모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보이며 이 또한 번역작품의 原作 선정에 있어서 명작을 주장했던 胡適의 번역원칙과 일치하다.

「人形의 家」(1921)에서 양백화의 번역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포착되는데 원문과 번역본에 대한 한중일 세 언어의 상호 참조가 바로 그것이다. 양백화가 번역한 입센의 「인형의 가」(1921)는 “원전 확인의 욕망”이라 평가받을 만큼 유례없는 정확성과 성실성을 획득했다[82]고 평하기도 했다. 양백화가 「「人形의 家」에 就ᄒᆞ야」(1921)의 부언(附言)[83]에서 밝힌 바와 같이 「人形의 家」를 번역할 때 양백화는 “삼인의 역본을 호상 참조하였는데” 이 세 사람은 바로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파쿼손 솨압, 다카야스 겟코(高安月郊)를 가리킨 것으로 전하고 있다[84]. 1926년 11월 양백화가 「수호전(水滸傳)」을 번역할 때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모사의 의촉(依囑)으로 「수호전(水滸傳)」을 번역하게 되어 일문(日文) 역본 둘을 참고해보다가 기막힌 오역을 발견하고 혼자 웃음을 금치 못한 일이 있다”고 양백화는 전한다[85]. 이는 원문에 충

81) (『양백화문집3』(강원대출판부), 1995, 302~304쪽.)
82) 김재석,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36, (한국극예술학회), 2012, 16～17・ 31～33쪽.
83) 양백화, 『양백화문집3』(강원출판사,1995),125쪽.
84) "白華와 桂岡의 共譯으로 된 脚本으로, 島村抱月의 譯本과 파쿼손 솨압 씨의 영역본, 高安月郊 씨의 역본을 호상 참조하여 역술한 것이다". (김영금, 위의 논문, 157쪽.)

실하고자 하는 양백화의 이른바 “원전 확인의 욕망”이 낳은 산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양백화의 탁월한 한문 실력과 일본어실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번역가로서의 양백화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평론은 「支那의 小說及戲曲에 就ᄒᆞ야」(1917)이다.「支那의 小說及戲曲에 就ᄒᆞ야」에서 양백화는 중국 원·명·청 삼조의 소설 및 희곡의 발달과정, 중국의 소설이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86]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를 두고 홍석표(2015)는 양백화가 중국 소설과 희곡을 번역 소개하는 데 주력한 것은 외국문학으로서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홍석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양백화는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 “자국문학의 발달에 자(資)코저 함[87]”이라 분명히 밝히면서 “동양문화의 원천이자 과거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지나문학”을 연구할 필요성과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중국의 소설과 희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88] 그 후 양백화는 중국문학의 번역 전문가로서 중국 소설과 희곡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매진하게 된 것이다[89].

그렇다면 이러한 양백화의 사상과 문학 번역관의 근원은 어디서 연유하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시발점을 불교에서 찾는 주장[90]과 양백화의 중국 속문학 연구에 중국문학이 미친 영향은 내적 요인으로 귀결시키고 그 외적요인으로 일본학계를 지목한 연구자[91]도 있다. 양백화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그의 문필가의 삶은 “한문을 배우다가 중국문학을 연구하여 보자는 생각이 났고 불서(佛書)를 읽다가 종교에 관한 소감을 말해본 것[92]”으로부터 시작된다. 번역가 양백화로부터 역

85) 양백화, 「五字嫖經」, 『양백화문집3』(강원출판사, 1995,) 197쪽.
86) 최용철, 「양건식의 『홍루몽』 평론과 번역문 분석」, 『양백화 문집3』, 1995. 458쪽; 동신, 「양건식의 중국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1쪽.
87) 菊如 梁建植, 「支那의 小說과 戲曲에 대하여」, 『每日申報』, 1917, 11. 6~9면.
88) 위의 글, 6~9면; 홍석표, 위의 논문(2015), 7쪽 참조.
89) 위의 논문, 7쪽.
90) 유봉희, 「양건식(梁建植) 사상과 문학의 총체성①－인물에 비춰 본 양건식 사상 궤적의 윤곽」,『한국학연구』(제59집), 257쪽.
91) 동신, 위의 논문, 국문초록에서 참조 인용함.
92) 『三千里』 제7권 6호. 1935.6. (「내가 붓을 잡기는」, 『양백화 문집3』, 1995. 72p)

으로 추적하면 양백화는 그에 앞서 소설가[93]였고 소설가이기 전에 독실한 불교신자[94]였으며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는 소싯적부터 중국문학에 심취한 애독자[95]였던 것이다. 1911년 양백화가 서울 각황사(薄洞)의 불교강습소에 입학하기 전에서 소싯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계몽의식과 번역관의 근저에는 량치차오(梁啓超), 옌푸(嚴復)가 자리하고 있었다.

개화기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교육, 정치, 군사, 문학 등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96] 사람은 梁啓超였다. 1898년 무술변법이 실패한 이후 량치차오 등은 정치개혁에 필요한 여론형성을 위해 문학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따라서 시계혁명(詩界革命), 문계혁명(文界革命), 소설계혁명(小說界革命), 희극개량운동(戲劇改良運動)이 제창되었는데 량치차오의 문학 개혁 주장에 힘입어 창작 소설이 크게 흥성했고 서양 소설이 대량으로 번역 소개되었다[97]. 청 말에 서양의 학술 사상을 소개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옌푸(嚴復)이고 옌푸가 번역 소개한 서양 사상 중에서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진화론이었다[98]. 진화론은 1898년 4월 옌푸에 의해 번역 출판된 『천연론(天演論)』[99]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지식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100]. 옌푸는 헉슬리의 원저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과감한 의역으로 자신의 관점을 적극

---

93) 양백화는 1910년대에 단편소설 「슬픈 모순」(1918년 2월 『반도시론(半島時論)』 제10호), 1922년 『동명』에 장편 역사소설 「빨래하는 처녀」를 연재하여 부녀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양백화가 본격적으로 번역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였다.

94) 선(禪) 교(敎)에 관한 서적을 스스로 읽음에 이르러 이때껏 불교를 교로 안보고 다른 것으로 본 것을 한 무지한 범부(凡夫)의 망상으로 알았다. 이에 나는 깊이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제자가 되었다.(「인류를 구제하는 종교」, 『양백화 문집3』, 1995. 105쪽.)

95)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조그마한 방에 책이 꽉 차서 그 키 큰 사람이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한다. (金榮福, 「白華의 文學과 그의 一生」 『양백화 문집3』, 1995. 359쪽.);

96) 李昇遠, 「舊韓末 西歐 敎育思想의 受容過程 硏究—媒介者로서의 梁啓超를 중심으로」, 『敎育史學硏究』제1집, 1988, 95쪽 참조.

97)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한영문화사, 2009)35쪽 참조.

98) 위의 책, 39쪽.

99) 옌푸의 『천연론(天演論)』(1898)은 토머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1825~1895)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1893)을 번역한 책인데 지식인을 상대로 고문으로 작성되어 역대급의 인기를 끌었다.

100) 홍석표, 위의 책, 39쪽 참조.

개입시켜 적자생존(適者生存)과 물경(物競), 천택(天擇)이란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서양 열강의 침략 하에 있었던 중국인들에게 우승열패의 관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嚴復이 『천연론(天演論)』의 서문 「譯例言」에서 주장한 번역원칙 "신(信)·달(達)·아(雅)"는 그 당시와 그 후 백년간 중국의 번역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번역의 "信·達·雅"는 "三難原則"이라고도 불리는데 "信"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지칭하고 "達"은 "번역문의 유창성"을 뜻하며 "雅"는 그 다의성으로 지금도 해석이 분분한데 초기에는 "문장의 우아함"으로, 후기에는 "문학성"으로 풀이되고 있다. 梁啓超는 출판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번역원고를 읽어보고 지인에게 추천하였고 胡適, 魯迅 모두 『천연론(天演論)』의 영향을 받았다.

1898년 량치차오가 일본으로 망명 이후 橫浜에서 창간한『청의보(淸議報)』는 서울과 인천에 판매처와 보급처를 두었다[101]. 1902년에 발간한『신민총보(新民叢報)』,『신소설(新小說)』은 인천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했다고 한다.[102] 개화기의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구한말에 사회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화된 데에는 량치차오(梁啓超)의『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103].『음빙실문집』은 주시경, 홍필주,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 애국지사들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청년들의 애독서가 되었다. 안창호가 설립한 大成學校의 漢文科에서는『飮氷室文集』을 정규 교과서로 채택하였고 안창호가 직접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장지연 역(1908)의『중국혼』, 현채 역(1908)의『월남망국사』, 신채호 역(1907)의『이태리건국삼걸전』등은 단행본으로도 널리 읽혔다. 梁啓超가 처음 한국에 등장한 시점은 1897년 2월,『대조선독립협회보 제6호에 실린 「淸國形勢의 可憐」을 통해서였으니 그때 양백화의 나이가 겨우 9세, 그로부터 1910년 11월 19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

101)『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의 논설 가운데『청의보(淸議報)』나『음빙실문집』의 내용이 여러 차례 초록되거나 인용되었고 (신승하,「舊韓末 愛國啓蒙運動時期 梁啓超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아세아연구』 41: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221~222쪽.)

102)張朋園, 「梁啓超與淸季革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4.) ,297~298쪽: 李昇遠, 위의 논문, 109쪽에서 재인용(李昇遠은 張明園, 淸季革命이라고 표기했음).

103)이광린,「구한말 진화론의 그 영향」,『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286~287쪽.

全恒基 역(1908)『飮氷室自由書』와 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이 금서로 지정되기까지 13년간, 즉 양백화의 9세부터 22세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梁啓超였다. 양백화의 첫 창작과 번역은 모두 1915년에 시작되었는데 처녀작 「石獅子像」의 주인공 김재창의 언행에서도 진화론의 "적자생존, 우승불패"[104]의 흔적이 역력했다. 같은 해 3월에 발표된 양백화의 첫 번역은 서구의 칸트사상에 대한 소개로 「西哲康德格致學說」인데 이는 바로 梁啓超의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을 저본으로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양백화의 창작과 시 번역, 희곡 번역, 소설 번역, 평론번역에 대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동양문학과 서양문학, 종교문학을 아울러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작품선정에 있어서 양백화는 고전문학에서는 명작을 선택하였고 현대문학에서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는데 이는 신문화운동의 嚴復, 胡適 등의 주장과 일치를 보인다. 번역방식에 있어서 양백화는 한중일 3개 언어의 번역본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 번역특징에 있어서 양백화는 중국고전소설의 특유의 맛을 살리고자 했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했기에 자연스러운 현대어 번역을 추구했다.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 양백화는 그 形을 넘어 神까지, 그 言을 넘어 聲까지 옮기고자 했다. 또한 언어의 불가역성(不可譯性)에 이르러서는 과도한 축자역이 오히려 原意을 상할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생략이나 문장 순서를 바꾸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의역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嚴復의 "信·達·雅" 번역원칙은 양백화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양백화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불교가 인류를 구제하는 종교[105]" 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고 양백화의 창작과 번역, 그리고 대중을 향한 포교활동은 모두 "자국문학의 발달에 자(資)코저 함" 이었으며 이러한 양백화의 계몽의식은 梁啓超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04) "약자라는 것은 생존상에 적당치 못한 물건이니, 자연 멸명(滅命)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도 리 없는 것이오"(『석사자상(石師子像)』,『불교진흥회월보』 창간호(1915.3), 71쪽.)

105) 양백화, 위의 글, 105쪽.

## 제 2 절 정래동

정래동(丁來東, 1903~1985)은 세 번역자 중에 정래동은 유일하게 성장과정과 교육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106] 기록되어 있는 번역자이다. 정래동은 양백화와 14살의 나이차가 있고 김광주와는 7살의 터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 및 교육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양백화의 생애와 김광주의 생애 모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대흐름의 특성상 정래동은 양백화와 유년시절에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배운 서당(書堂)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김광주와는 초등학교시절에 보통학교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겹쳐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래동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정래동의 언어적 구성과 번역가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2차적으로는 정래동의 성장 및 교육과정을 거울삼아 양백화와 김광주의 생애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래동의 번역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여 양백화의 信・達・雅 번역원칙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2.1 성장과 교육과정

정래동(1903~1985)은 전남 곡성의 유복한 가정[107]에서 태어났다. 1907

106) 1971년 정래동(1903~1985)의 차남 정직하(丁直下)가 중국문학 연구자 허세욱(1934~2010)과 함께 정래동의 작품들을 모아 정리하여 『정래동 전집(丁來東全集)』(금강출판사)을 출판하였다. 전집은 모두 3권인데 제1권 『정래동전집Ⅰ· 학술논문편』은 중국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논문과 저자연보가 수록되었고, 제2권 『정래동전집Ⅱ·평론편』은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소개와 평론작품의 모음이다. 제3권 『정래동전집 Ⅲ· 창작·번역편』은 정래동의 중국현대문학 번역작품과 그가 창작한 시, 소설, 수필들로 이루어져있다. 양백화 최초의 문집(1988)이 저자 타계 이후 40여년 만에 출판된 것에 비해 정래동의 문집은

107) 1894년에 조선왕조가 갑오개혁을 통해 노비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지만 정래동의 집에는 1907년에도 머슴이 있었고 외갓집에 갈 때에도 가마를 타고 다

년 정래동은 5세 때 처음 『천자문(千字文)』을 접하여 1909년 7세 때부터 『천자문(千字文)』, 『퇴구(推句)』, 『학이집(學而集)』을 배우고, 1910년 봄에 館書堂에서 『사략(史略)』,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을 공부하다가 1913년 11살 때에는 사서(四書)·삼경(三經)과 함께 보통학교의 교과서로 算術·작문과 작시법을 배웠다고 한다. 1916년 4월 14세에 이르러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2개월 만에 3학년에 진급하였다. 바꾸어 말해 정래동은 1916년에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약 7년 가량의 한문공부를 한 셈이다.

1917년 8월 정래동은 15세 되는 해에 보통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해 오카다(岡田)라는 사람에게서 일어 개인교수를 받았다. 정래동은 1918년 3월 明治學院에 입학하여 1919년 2월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會合에 참석하고 그 뒤에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조선인 학생 전원이 同盟退學을 하였다. 그해 여름에 정래동은 귀국했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補習學校에 다니면서 1학년 학과를 재수하여 9월에 다이세이중학교(大成中學校) 2학년에 입학하였다. 1923년 2월 다이세이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예과(豫科) 입학시험에 실패하여 여름방학으로 귀국하던 중에 東京大震災로 하숙집이 다 타버리고 조선인 대학살이 있은 뒤로 일본으로 갈 생각을 버렸다고 한다. 정래동의 일본 유학기간은 1917년 8월부터 1923년 9월까지 만 6년이었다.

그 다음해 8월 정래동은 중국 奉天으로 가서 北京으로[108] 가는 기차에 올랐다. 1925년 9월 정래동은 北京民國大學 예과 2학년에 입학하였고 1926년[109] 9월에 민국대학 영문학과[110]에 입학하였다. 1926년 4월말 北

---

넜다고 한다. (정래동, 「저자 연보」, 『정래동전집1』 (금강출판사), 1971, 421쪽 참조.)

108)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학살을 피해 베이징으로 유학하러 한인청년들이 몰려들었다. 1920년대 중반 베이징의 한인은 1000여명에 달했는데 그중 유학생은 300여명에 달했으며 유학생 신분을 빌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손염홍, 「1920년대 전반 북경지역 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서울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3, 36쪽 참조)

109) 같은 해 12월 정래동은 오남기 등과 함께 새로 결성된 북경한국류학생회(北京韓國留學生會)의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기존에 北京에서 유학하던 한인학생

京을 중심으로 무정부주의사상을 수용한 한인들은 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조직하였다. 1926년 9월에 심여추(沈龍海), 유수인(柳基石), 丁來東, 吳南基 등은 크로포트킨硏究 모임을 만들고 方未艾란 익명으로 북경중앙우체국의 사서함을 통해서 각국의 무정부주의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간행물을 교환하는 등의 선전활동을 하였다. 1928년 10월경 柳基石·丁來東·吳南基·鞠淳葉·金用賢·李容鎭 등이 중심이 되어 아나聯盟을 조직하고 《이튿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영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래동은 "英文學을 하면 中國文學은 環境關係로 자연히 習得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언급하였다. 1930년에 민국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래동은 영문학도 시원찮고 중국문학도 신문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백지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공부를 더 하기로 결심했다. 歸國하여 일본인 밑에서 취직할 수도 없고 프랑스(佛蘭西)로 가려하였으나 여권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歐美도 못가고 하는 수 없이 中國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한다[111].

정래동은 목표의식이 분명했다. 1927년 펑톈(奉天) 군벌 張作霖(1875~1928)이 베이징에 입성하고 그해 6월 刘哲 (1880~1954)이 교육총장에 취임하자 8월 4일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을 폐지하고 베이징의 아홉 개 대학을 병합하여 경사대학교(京師大學校)[112]라 칭하였다. 1928년 民國大

---

들은 의견차이로 조선(朝鮮)과 고려(高麗) 두 패로 나뉘어 유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 1926년 12월에 모두 해체하고 북경한국유학생회(北京韓國留學生會)로 통일단체를 조직하였던 것이다.(「북경학생통일 재중동포학생」, 『동아일보』, 1926년 12월 20일, 2면.)

110) 1924년 民國大學 영문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으로 근대영미문학개론, 영국문학사, 영문수사학 및 文體學, 散文選讀, 戲劇選讀, 詩選讀, 英文詩律學, 작문, 제2외국어 등이 개설되었으며 선택과목으로 유럽문학개론, 유럽근대문학론, 서양문화사,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사, 철학개론, 미학개론, 聲律學大義, 중국사, 세계사, 영국사 등이 있었다. (이재령, 「20세기 초반 在中留學生 丁來東의 신문학 인식과 전파」, 『歷史學硏究』 제82집, 342쪽 참조.)

111) 정래동, 「내가 大學을 卒業하던 때」, 『정래동전집Ⅲ· 창작·번역편』, 금강출판사, 1971, 266쪽 참조.

112) 정래동은 京師大學堂(1898~1912)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정래동, 「著者 年譜」, 『丁來東全集』Ⅰ－학술논문편(금강출판사,1971),425쪽.) 경사대학당은 베이징대학의 전신으로 1912년 5월 3일 北洋政府에 의해 베이징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27년에 張作霖에 의해 병합된 9개의 대학은 北京大學, 北京師範大學, 北京女子師範大學, 北京工業大學, 北京農業大學, 北京法政大學, 北京醫科大學, 女子大學, 北京藝術專

學의 凌子平이 경사대학교의 영문학과 주임으로 이직하면서[113] 정래동은 民國大學 영문과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경사대학교에 편입하게 되었다. 1928년 6월 장쭤린이 물러나고 1929년에 北京大學으로 회복되자 경사대학교 시기에 입학한 학생은 다시 시험을 치러야 했다. "중국에 와서 중국 고유의 것을 배우지 않고 외국의 것만 배우는 일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114]" 고 판단한 정래동은 청강생의 신분으로 베이징대학교에 남아 그로부터 중국문학 관련 시·산문·희곡·수필 가리지 않고 모두 수강하였다고 한다. 1927년부터 밤에는 샹페이량(向培良, 1905~1959)에게서 白話文學 작품을 배우는 대신 向培良에게는 일어를 가르쳐주고 오후에는 鄭女士에게서 詞를 배웠다. 1930년부터 심여추(沈茹秋)의 소개로 여름방학에는 自由學園의 곽동헌(郭桐軒)[115]에게서 『史記』와『文選』을 사숙했고 唐宋 이후의 古文을 배웠다. 이와 같이 정래동이 언어교환, 개인교수, 청강을 통해 중국 최고의 학부 베이징대학에서 구축한 학문의 세계는 체계적이었으며 전면적이라 할 수 있다.

정래동은 "다른 學生보다 倍의 노력을 하면 英文學·中國文學 두 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 있으리라" 는 의지로 1924년부터 下宿에서 중국어 개인교습을 매일 한 시간씩 받았는데 당일 배운 내용은 百回이상 읽기를 꼬박 5년간 지속했다고 한다[116]. 심지어 정래동에게 중국문학을 가르쳐 준 스승들의 실력 또한 예사롭지 않다. 정래동에게 백화문학을 가르쳐준 向培良은 당시 촉망받는 극작가로 魯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이름이 아니었다. 1925년 魯迅·高長虹·向培良·章衣萍 등은 사

---

科學校 등으로 1928년 6월 8일 국민당정부에 의해 中華大學으로 변경되었다가 1928년 8월 16일에 北平大學으로, 1929년 7월 1일 다시 北京大學으로 명칭을 회복했다.

113) 1927년 8월 刘哲이 경사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고압정책에 北京大學 시절의 교수들은 분분히 이직을 선택하였고 학생들이 많이 南下하였다.

114) 이상은, 「序」, 『정래동전집』 Ⅱ－평론편(금강출판사, 1971), 3쪽.

115) "1924년 10월경 북경민국대학에서는 유기석, 심용해, (이상조선인) 향배량(向培良), 이패감(李沛甘), 고장홍(高長紅), 곽동헌(郭桐軒), 파금(巴金), 방종오(方宗鰲) <이상 중국인> 등이 학생동지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는 '흑기연맹(黑旗聯盟)'을 조직하고 아나키즘을 연구,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정부주의운동사편전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p. 296.

116) 정래동, 앞의 책(『전집』Ⅰ), 424쪽.

회 비평과 문명 비평에 초점을 맞추어 망원사(莽原社)를 조직하고 주간지 『망원(莽原)』을 발간했다. 『魯迅日記』에 총 93회 등장하며 1924년부터 1926년까지 魯迅과 밀접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다[117]. 정래동에게 고전문학을 가르쳐준 郭桐軒은 1923년 9월 穆木天 등과 함께 吉林에서 동북지역 최초의 신문학 단체 白楊社를 설립하고 1924년 2월에는 간행물 『白楊文壇』을 창간하였다. 다시 말해 정래동에게 현대문학을 가르쳐준 向培良이나 고전문학을 사사(師事)한 郭桐軒이나 모두 문학적 재능으로 중국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유능한 스승이 뛰어난 제자를 배출시킨다' 는 속담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예외가 '당일 배운 내용은 百回이상 읽기를 꼬박 5년간 지속했다' 는 정래동의 경우는 아닐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해 훗날 정래동의 「阿Q正傳」 번역에서 문법적 오류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정래동전집Ⅰ』의 「저자연보(自敍)」[118]에 따르면 정래동이 중국에 입국한 시점은 1924년 8월, 동아일보에 입사한 그 해 귀국한 시점은 1932년 5월,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작은 의혹 하나가 있다. 연보에 작성한 바에 의하면 정래동이 중국에서 유학한 시간은 8년가량, 허나 같은 책 『정래동전집Ⅲ』의 「내가 大學을 卒業하던 때」에 따르면 정래동은 1930년 영문학과 졸업 후 4년간 중국문학 관련 시·산문·희곡·수필 가리지 않고 모두 수강하였다고 한다[119]. 그렇다면 정래동이 귀국한 시점은 1932년과 1934년 두 개의 설이 되는 것인데 정래동은 대체 언제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일까? 1934년 8월에 발표한 「조각소설(彫刻小說)과 나열소설(羅列小說)」이라는 글의 말미에 "베이핑(北平)을 떠나면서 ……4월 23일"이라고 부기해놓았으나[120] 이는

117) 홍석표,『중국현대문학사』(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99쪽.

118) 저자연보에 따르면 정래동은 1932년 5월에 귀국하여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서무부장을 역임하다가 1941년 동아일보가 폐간되고 보성전문학교 중국어 전임강사로 나갔다. 1946년 서울대 중문과 주임교수 취임, 1961년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정래동, 「저자연보(自敍)」, 『정래동전집1』 (금강출판사), 1971, 426쪽.)

119) 정래동, 「내가 大學을 卒業하던 때」, 『정래동전집Ⅲ』 (금강출판사), 1971, 267쪽.

120) 정래동, 「彫刻小說과 羅列小說)」, 『中央』, 1934.8.

‘1934년 귀국설’을 뒷받침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입증해줄 근거로는 부족하다. 1932년 5월에 귀국하여 동아일보에 입사 후 잠깐 베이징(北平)에 출장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일수도 있으니 말이다. 결정적인 단서는 1934년 3월 5일 『동아일보』에 「在中國朝鮮人 文藝協會組織」의 제목으로 실린 기사인데 ‘재중국조선문예인협회’의 소재지를 ‘北平民國大學內’와 ‘上海法界望志路 北永吉里 10號[121]’로 밝히고 있다. 그 ‘北平民國大學’이 바로 정래동이 유학하고 있던 베이징 소재 대학인데 발기인 명단에는 김명수(金明水), 전창근(全昌根), 안우생(安偶生), 정래동(丁來東), 김광주(金光洲)로 적혀있었다.다시 말해 정래동은 1934년 3월 5일까지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4월 23일날 베이징을 떠난 것으로 귀결이 된다. 이로써 정래동은 베이징 民國大學 영문학과 출신에 중국의 백화문학과 고전문학을 겸하여 꼬박 10년간 공부한 셈이다. 이는 정래동이 소싯적에 7년간 쌓은 한문 실력, 일본에서 6년간 유학하면서 쌓은 일본어 실력과 더불어 훗날 양백화의 『阿Q正傳』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어학적·문학적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2.2 원문에의 충실성과 직역

정래동의 시 창작은 1925년에서 1935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에는 총 9수[122]가 수록되어 있다. 정래동이 창작한 소설로는 「그날 저녁」(1939)이 있는데 『정래동전집3』(1971)에 수록되어 있다. 우선 시 번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래동의 시 번역은 총 8수인데 주로 193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

121) 김광주의 회고에 따르면 ‘上海法界望志路 北永吉里 10號’는 김명수의 집이자 상하이에 처음 나타나는 한국청년들이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보헤미안』 동인들이 모이던 김광주의 ‘정자간(亭子間)’이 있는 곳이었다.

122) 「겨울 달」(1925),「눈 오는 아침」(1925),「비오는 오전(미상),「무엇하러 돌아가나?」(1932),「그대여 웃지 마소!」(1932),「杜鵑賦」(1932),「남쪽 나라 고향엔」(1932),「輓歌」(1934),「旱災」(1935) 등이 있다.(『정래동전집3』(금강출판사),1971,12~30쪽)

1932년에 정래동은 徐志摩의 「去罢」, 「渺少」를 번역하여 『신동아』 제2권 제2호에 각각 「가거라」, 「渺少」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1933년 12월에는 臧克家의 「拾落葉的姑娘」를 『신동아』 제1권 12호에 「落葉줏는處女」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1933년 12월 정래동은 戴望舒의 「薄命妾」, 曦晨의 「鄉愁」, 郭沫若의 「夜半」, 曹葆華의 「農家怨」를 『중앙』 제1권 12호에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1934년 5월 3일 정래동은 『동아일보』에 朱湘의 「葬我」를 같은 시제로 번역 소개하였다. 정래동의 시 번역을 살펴보면 양백화의 시 번역과 동일한 특징이 보인다. 곧 번역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백화는 고전시가와 현대시, 정래동은 현대백화시를 선택했다는 상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은 그 시인들이 모두 유명 시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래동의 번역은 축자역으로 딱딱하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래동의 현대시 번역은 어떤 모습일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拾落葉的姑娘 (臧克家) | 落葉줏는處女 (정래동 역) |
|---|---|
| 她不管秋光老得多可憐,<br>也不管冷風吹得多悽慘,<br>讓破爛的單衣發着抖,<br>只顧拾着, 一片, 兩片, 三片[123]<br><br>(후략) | 그는 가을볓이 늙어서 가련한 것도 상관않고<br>또 찬바람이 처참하게 부는 것도 상관않으며<br>떠러진 흣옷이 떨리는대로 버려두고<br>그저 한닢 두닢 세닢 주슬 뿐이네[124]<br><br>(후략) |

위는 정래동 번역시 「落葉줏는處女」의 일부분이다. 예문에서 볼 때 번역문은 우선 원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내용 또한 원문의 충실성을 잃지 않았으며 문법상의 오류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 시를 보도

123) 臧克家 著, 時代文藝社 編,, 『臧克家全集』, 長春: 時代文藝出版社,2002,33쪽.
124) 臧克家 저, 정래동 역, 「落葉줏는處女」, 「中國新詩選譯」, 『중앙』 제1권 12호,1933. 22쪽.(방평, 앞의 글, 50쪽에서 재인용.)

록 하자.

| 葬我 (朱湘 著) | 葬我 (정래동 역) |
|---|---|
| 葬我在荷花池內<br>耳邊有水蚓拖聲<br>在綠荷葉的燈上<br>營火蟲時暗時明<br><br>(중략)<br>不然, 就燒我成灰<br>投入氾濫的春江<br>與落花一同漂去<br>無人知道的地方[125]. | 귀가에 지렁이의 느린 소리 들리고<br>푸른 연잎 등잔 우에<br>반딧불이 까막까막 하는<br>연꽃이 핀 못안에 나를 묻어주소.<br><br>(중략)<br>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태워 재 되거든<br>氾濫한 봄江에 던져주소<br>떨어지는 꽃과 동무삼아<br>알지 못할 곳으로 떠내려가게[126] |

윗 시와 달리 우선 형식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미파악이나 문법파악의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 매끄러운 번역이다.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번역의 방식을 바꿀 줄 아는 번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래동의 소설번역은 어떤 특징이 보일까?

정래동이 번역한 魯迅의 작품에는 소설 「愛人의 죽음(傷逝)」(『중외일보(中外日報)』1930.3)와 「공을기(孔乙己)」(『形象』1934.2), 희곡 「과객(過客)」(『삼천리』1932.9)가 있다. 그밖에 정래동이 번역한 백화소설에는 郁達夫의 「沈淪」(『世界短篇小說全集』第7卷(東洋篇)啓蒙社)이 있으며, 1939년에는 嚴良才의 소설 「最後의 慰安」[127]을 번역하여 펴냈다. 정래동이 번역한 고전소설에는 「枕中記」등이 있고 희곡작품에 대한 번역으로는 1932년 『東光』9월호에 번역하여 실었던 丁西林의 희곡 『벌』, 1932년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조선일보』에 번역 연재하였던 熊佛西의『모델』이 있다. 1932년 9월 정래동은 郭沫若의 「湘累」를

125) 朱湘, 「葬我」, 『草猛集』, 1927.
126) 朱湘 저, 정래동 역, 「葬我」, 「長江에 永古한 詩人 朱湘과 中國詩壇(三), 『동아일보』, 1934. 5. 3.
127) 嚴良才 저, 정래동 역, 「最後의 慰安」, 『문장』1(10), 1939.11, 106-112쪽.

『제일선』9월호에 번역 발표하였다. 1933년에 정래동은 『東光』5월호에 向培良의 『黑暗中의 紅光』을 번역하여 펴냈다. 1933년 정래동은 『新家庭』9월호(제1권)에 田漢의 「江村小景」을 번역하여 발표했다. 정래동이 번역한 소설과 희곡에는 『枕中記』를 제외한 대다수가 백화문으로 작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백화와 상이한 부분이다. 양백화의 희곡 번역에는 고전희곡과 현대희곡, 중국희곡과 서양희곡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소설 번역 또한 『紅樓夢』이나 『三國演義』등 명작을 포함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 불교소설까지 다양한 종류와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정래동과 양백화의 소설 번역에는 시 번역과 마찬가지로 번역대상에 명작이 많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양백화는 魯迅보다는 胡適의 번역 주장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이나 소개대상에 있어서 정래동의 선정기준은

魯迅을 최초로 한국에 등장시킨 사람이 양백화라면 가장 먼저 魯迅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정래동이라 할 수 있다. 1931년 1월 4일에서 11월 30일까지 정래동은 총 22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루쉰과 그의 작품」[128]을 연재하여 魯迅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정래동이 번역한 평론으로는 『조선일보』(1931. 6.14~7.5)에 소개된 胡適의「나의 自己思想紹介[129]」가 있으며 『조선문단』제4권 제3호에는 趙景의 「中國新詩概評」(1935.4)이 번역하여 실렸다. 1935년 6월에는 『신동아』제5권 제6호에 王哲甫의 「中國兩大文學團體概觀」을 번역하였고, 1937년 3월에는 『조선문학』제3권 제3호에 王哲甫의 「中國作家紹介-葉紹鈞과 沈從文」 등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양백화의 평론 번역과 비교하자면 정래동의 평론 번역의 대상은 중국신문학 관련 평론이 많다. 베이징 현지에서 직접 체득하였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어 중역의 필요성이 낮은 편이다. 반면에 양백화의 평론번역의 대상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며 원문의 평론 대상은 희곡, 소설, 시, 佛典, 철학

128) 이에 응하여 1931년 2월 이경손은 『조선일보』에 「그 후의 루쉰: 정군(丁君)의 루쉰론을 읽고」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129) 정래동, 『정래동전집』(제1~3집), 금강출판사, 1971. 477쪽.

서 등 장르가 다양하다. 주지하다시피 한문 실력과 일본어 실력이 뛰어난 반면에 白話에 약한[130] 양백화는 중역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였는데 이는 정래동의 번역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번역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어 번역본을 참조했다는 점이다.

1930년대 초반에 정래동은 총 6편의 중국 현대희곡을 번역하였는데 그 중 작품 「버얼」의 「역자의 전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一隻馬蜂」은 特히 有名하며, 日本 近代社에서 發行하는 『世界戲曲全集刊行會』의 中國新劇 中에도 다만 이 한 편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日譯은 참으로 말할 수 없 는 惡譯이고, 誤譯이었다. 筆者는 이 作品을 譯할 때 다소 難譯處가 있어서 日譯을 參考하여 보았는데, 大部分이 誤譯이뿐이었다. (중략)
>
> 筆者는 日譯을 對照하여 가면서 誤譯된 곳을 表를 하였더니, 不過二十頁 以內 된 이 劇에 約 五十餘 處의 誤譯이 있었으며 그 中 여러 곳은 四, 五 行 乃至 一人의 全 對話가 全部 本文과 딴 소리를 써 놓은 곳이 있었다. 筆者는 이것을 보고 더욱 未審한 곳을 다른 學友와 問議하여 二, 三 次나 修正을 하였다. 大體로 本文의 뜻은 그대로 傳한 셈 이다[131].

이와 같이 정래동은 「버얼」을 번역할 때 丁西林의 원문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일본의 번역본도 참조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은 양백화의 모습과 닮아있다. 양백화는 입센의 「人形의 家」를 번역할 때 세 번역본을 참조하였다고 밝히는데 島村抱月, 파쿼손 솨압, 高安月郊의 번역본이 바로 그것[132]이었다. 참고한 日譯에서 오역을 일일이 찾

130) "나는 중국말을 알지 못하므로...(중략)". (양백화, 「필담하다 대실수」, 『양백화 문집3』, 1995, 33쪽 참조.)
131) 丁西林 저, 정래동 역, 「버얼」, 『동광』 37호, 1932. 105쪽.
132) "白華와 桂岡의 共譯으로 된 脚本으로, 島村抱月의 譯本과 파쿼손 솨압 씨의 영역본, 高安月郊 씨의 역본을 호상 참조하여 역술한 것이다" (김영금, 위의 논문, 157쪽, 주 199).

아낸 대목 또한 양백화의 수필에서 등장한다[133]. 이와 같이 양백화와 정래동은 번역방식에 있어 모두 일본어 번역본을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두 사람의 번역 태도는 원작에 충실하고자 하는 번역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언어의 불가역성(不可譯性)과 조우할 때나 본인의 어학 실력으로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의 유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양백화는 의역을 선택하고 정래동은 단호하게 직역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번역의 태도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김광주

김광주(金光洲, 1910~1973)는 한국문학사에서 소설가로 등장한다. 1930년대에 상하이(上海)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신문과 잡지에 루쉰(魯迅)의 단편소설을 번역 게재하고 현대 중국문예를 비평 소개하는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 상하이의 『晨報』의 문예란 『每日電影』에 투고하여 중국어로 영화 관련 평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8·15해방 직후에는 이용규(李容珪)와 함께 한국 최초로 『루쉰단편소설집(魯迅短篇小說集)』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루쉰 문학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3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논문에서는 김광주의 소설가, 아나키스트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출 뿐 루쉰 소설 「阿Q正傳」의 번역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에 앞서 그의 번역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장 및 교육과정, 번역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광주가 중국에 체류했던 시간은 1929년~1945년으로 추정되나 본 논문에서는 김광주의 吉林 푸리병원 시절(1929), 상하이 시절(1929~1938)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35]

133) 「五字嫖經」, 『양백화문집3』(강원출판사), 1995, 197쪽.
134) 홍석표, 위의 논문(2016), 75쪽.
135)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경우 滿洲事變 이후 일본정부당국의 엄격한 검열로

### 2.3.1 성장과 교육과정

1910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한 김광주(金光洲, 1910~1973)는 수원공립보통초등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136]에 진학하였다. 김광주는 5학년 때 중퇴하고[137] 1929년 3월 맏형 김동주(金東洲)가 있는 중국 吉林으로 떠났다.[138] 그해 김광주의 나이가 20세였고 김동주는 30세 전후부터 중국으로 망명하여 15~6년이나 생사를 모르다가 푸리병원(浦利醫院)에서 극적상봉을 한 것이다. 김동주가 경영하던 푸리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독립군의 은신처였는데 푸리병원에서 머무는 동안 스쳐간 독립운동가(獨立運動者)들의 모습을 김광주는 다음과 같이

---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던 중국 관련 문장이 크게 제약을 받기 시작하여 문학작품의 소개와 번역도 위축되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중국관계서적은 금서가 되어 한국 내 중국현대문학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김시준, 「光復 以前 韓國에서의 魯迅文學과 魯迅」,『중국문학』제29집, 1997. 191쪽) 중국의 경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일본의 침략, 군벌 내란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많은 작가들이 문필활동을 그만두고 항일운동에 참여하거나 淪陷區의 일본과 國統區의 국민당 정권의 검열정책으로 작품의 발표가 어려워지고 중국현대문학은 침체되었다. 따라서 중국현대문학의 번역 활동 또한 불가피하게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상하이를 떠난 이후 김광주의 문필활동은 중국어창작에 집중하게 되고 그 행적에 대해서도 김광주가 함구하고 있으므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은 1946년에 발표된 것이나 1929~1931년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36) 수원공립보통초등학교는 현재의 신풍초등학교이다.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는 현재의 경기고등학교로 1906년에 학교 명칭이 관립한성고등학교로 바뀌었고 1922년에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137) 중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양백화와 마찬가지로 김광주의 이력에 관한 자료는 계속 발굴 중이다. 특히 1938년 1월 상하이를 떠나 해방 후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행적은 김광주의 「상해시절 회상기」(1966)에서도 함구를 하고 있다.

138) 金光洲가 중국에 들어간 시점은 그의 「上海時節回想記」(上)(1965)에서 단서가 보인다. “二0부터 三0까지 꼭 十年 동안을 나의 上海時節이라 할 수 있고 보면, 가장 젊은 시절이요”, “서울서 자라난 二0세의 少年인 나와 三0前後부터 滿洲로 망명하여 日帝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던 東洲兄 과는 十五, 六년동안이나 生死를 모르다가 이 病院에서 劇的 相逢을 했다”, “上海로 갈 수 있다는 사실만이 나는 기뻤다. 그해(一九二九年頃?) 七月` 형수는 나의 旅裝을 꾸려 주었다”라는 문구에서 김광주가 20세가 되던 1929년에 중국에 입국하였고 상해로 출발한 시점은 그해 七月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해진다.

기억하고 있다.

“여기 三丶四個月을 있는 동안에 내 눈을 스쳐간 무수한 獨立運動者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는 지금 일일히 기억해내는 도리가 없다. 시퍼런 中服두루마기에 초라한 모습이면서도 그들의 두 눈동자만은 항시 반짝반짝丶 病院문이 닳도록 갈팡질팡 무시로 드나들었고丶 때로는 심야에 病院 깊숙한 방에 모여서 쑥덕쑥덕.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소름끼치는 소리뿐이었다. 누구를 어떻게 한방에 없어버려야 하느니 어디를 어떻게 몇 명이 쳐들어가야 하느니丶 ...” 김광주의 기억에 따르면 凍州兄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다가도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 들어오는 날이면 십중팔구 “어떤 동지가 滿鐵線의 어느 지점을 폭파하려다가 중국 官憲에게 잡혀서 日警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아슬아슬한 위기”였고 그 위기를 해결하러 張作霖이나 무슨 廳長이나 局長에게로 달려가서 一對一로 담판하고 韓國革命同志들의 목숨을 건져내군 했던 사람은 중국인 형수였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吉林에서 머물렀던 3~4개월의 추억은 김광주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김광주의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불과 몇 줄 안 되는 김광주의 문장에 “반짝반짝, 갈팡질팡, 쑥덕쑥덕, 무시무시, 아슬아슬” 등 언어의 생동감을 살려주는 의성의태어가 연속 5개나 쓰인다. 이는 김광주만의 언어특징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징은 훗날 김광주의 「아Q正傳」 번역문에 자주 등장한다.

김광주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29년에 중국으로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광주의 성장과정에서 상하이에 출발하기 전 독립운동가 맏형과 이름 모를 중국형수와 함께 했던 3~4개월간의 吉林 푸리병원에서의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 김광주의 「上海時節 回想記(上)」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김광주의 경기고보의 공부는 누이 김진배(金眞培) 덕분이었고 그 누이가 女學校를 갓 나온 소녀의 몸으로 김도필(金道筆)[139]과 함께 국경선을 넘어 형

139) 金道筆은 김진배의 동기생으로 「上海時節 回想記」(1966)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1938년 1월 김광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上海를 떠나 天津에서 살고 있는 金道筆에게 가서 서울까지 어머니를 기차로 부탁한다.

김동주를 찾아냈다는 것, 김광주가 중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형이 중국에서 대학공부를 시켜주기로[140]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푸리병원에서의 3~4개월이 20세의 김광주에게 獨立運動이란 폭탄과 죽음, 감옥과 가족 간의 이별로 인식되어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 김동주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여 15~6년이나 소식이 끊겼다는 대목에서 역으로 추정하면 김광주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4~5살 때부터 형에 대한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된다. 15~6년간 형에 대한 상상 속의 삶이 푸리병원에서 폭탄과 죽음의 실체로 다가왔을 때 그 충격은 상상이상이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충격을 김광주는 "무시무시한 것"으로 인지했다는 점이다. 훗날 상해에서 김광주는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며 김구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유기석(柳基石, 柳絮, 柳樹人)과는 다른 행보[141]를 보이

---

140) 육남매 중 막내인 김광주에게 맏형 김동주는 나이 차이로 보면 아버지나 다름없었다. 고등학교를 누이 김진배 덕분에 다녔고 이어 형 김동주 덕분에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김광주 입장에서는 15년~16년 만에 만나게 된 아버지 나이 뻘의 맏형의 의사를 거부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한다.

141) 김광주는 1931년 9월 '남화한인청년연맹'이 결성되었을 때 아나키스트 정해리, 이하유 등과 함께 활동했으나 '남화연맹'이 1932년 5월부터 백범 김구와 협의하여 '서간단(鋤奸團)'을 결성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뛰어들게 되자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주가 "허울 좋은 애국자니, 혁명투사니 하는 위선과 독선도 우리는 보기 싫었다"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인 행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그의 심리상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홍석표, 위의 논문(2016), 85쪽.), 이런 경향은 해방 후에도 "어느 당파나 그룹의 선전공구가 되어 마음에도 없는 예술운동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왜정(倭政)의 강박과 명령에 못이겨 마음에 없는 예술운동을 한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를 묻고 싶다"(金光洲,「고요한 마음」, 『春雨頌』, 8-9쪽.) 등 발언으로 이어지는데 김광주가 선전도구로서의 예술의 정치성을 부정한 것은 그것이 작가의 예술적 자유의지를 말살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홍석표, 위의 논문(2016), 88쪽.), 상하이 시기에 형성된 김광주의 아나키즘적 문예의식, 곧 이러한 정치와의 거리두기는 그 시점에 이미 左聯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魯迅과의 심적 거리두기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김광주가 상하이 도착한 시점은 1929년 여름, 魯迅이 상하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시점은 1927년이니 魯迅이 1936년에 타계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7년을 함께 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광주가 魯迅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시점은 김광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魯迅이 먼저 떠나고 없는 상하이를 떠나던 시점, 그리고 김광주가 처음 魯迅의 작품으로 중국어를 배우던 시기이다. 문학도로서의 김광주에게 가장 중요했던 상하이 시절의 시작과 끝이 魯迅임을 감안하면 어쩌면 1946년 『루쉰단편소설집』(김광주.이용규 공역)의 출간은 당연지사이다.

는데 이는 김광주의 성장과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은 베이징과 톈진(天津)에서 柳基石과 함께 아나키스트 활동을 펼쳤던 정래동과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吉林大學 입학을 위해 김광주는 3~4개월간 형님의 집에서 형수와 가정교사에게 하루에 1~2시간씩 중국어 기초부터 공부를 하던 중[142], 형의 권유로 1929년 7월에 上海로 떠났다. 김광주는 영문과를 지망했으나 김동주는 同濟大學醫科를 원했고 결국 吉林大學과 마찬가지로 中國語와 英語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입학이 수월[143]한 南洋醫科大學에 진학하게 된다. 김광주는 그해 가을학기부터 南洋醫科大學에서 학업을 시작했지만 의학공부보다는 문학에 심취했다. 그 무렵 廣東 中山大學 영문과를 마치고 상해 집으로 돌아온 金明水와 같은 문학청년이라는 이유로 가까워지면서 중국문학작품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어를 늘리기 위해 魯迅, 郁達夫, 氷心, 巴金, 郭沫若 등 당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상해의 유학생의 모임이었던 韓人學友會의 學藝部를 맡아 창작극을 공연하기도 하고, 김명수와 함께 「習作」이라는 동인지도 발행했다. 그 후 전창근, 이규환, 이경손 등과 함께 문예동인지 『보헤미안』을 발간함으로써 金光洲의 상해에서의 문예활동은 그 절정을 이룬다. 또한 같은 시기에 조직된 「보헤미안 극사」는 상해의 연극인, 영화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창작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144].

南洋醫科大學의 수업은 일주일에 고작 1~2일을 나가면 그만이었고 공부를 하다가도 마음이 답답하면 뛰쳐나가 김명수와 문학을 논하기 일쑤

142) 처음에는 吉林大學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중국어 기초부터 시작해서 3~4개월만에 중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하여 합격할 가능성은 너무 낮았다. 형수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吉林大學 입학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형의 의견에 따라 상하이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다.

143) 南洋醫大는 외지에 나가있는 화교들이 경영하는 단과대학으로 일본출신의 교수들이 많고 입학시험도 수월하며 예과(豫科)도 없이 대학4년이면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144) 박남용·윤은혜, 「金光洲의 중국 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中國硏究 第47卷』, 2009, p.136.(박남용·윤은혜, 「金光洲의 중국 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中國硏究 第47卷』, 2009, 137쪽.

였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첫 학기의 어느 날 南洋醫科大學의 담당교수와 학생들이 메스를 잡고 인체해부 실습수업에 임하는 장면에 놀라 醫學의 꿈은 접기로 했다[145]. 김광주의 상황은 劉振東을 통해 형에게 전해졌다. 金凍州는 김광주의 뜻대로 朴南坡를 통해 南京 中央大學 문과 편입을 알아봤으나 南洋醫科大學 3학년생 신분으로 편입은 고사하고 청강생 자리조차 어려웠다. 그로부터 김광주는 중국 대학 편입문제는 단념하고 문예 활동[146]에 매진하게 되었다. 정래동의 상황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 후 김광주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1938년 1월 상해를 떠나기 전까지 약 9년가량 上海에 머물렀다. 이로써 김광주의 학창시절을 살펴보았다.

### 2.3.2 자국화 번역과 문학의 번역

한국문학사에서 김광주는 소설가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1960년대 초 『경향신문』에 『정협지(情俠誌)』라는 무협소설을 연재하여 한국에 무협소설의 붐을 일으킨 작가로 기억된다. 정래동과 마찬가지로 김광주의 중국 신문학 관련 평론은 번역 글보다는 창작 글이 훨씬 많았다. 평론에 관한 번역도 초기 몇 편을 제외하고는 직접 평론을 시작하였다.

김광주는 1931년 3월 28～4월 1일에 『朝鮮日報』에 총 5회에 걸쳐 錢杏邨의 「中國文壇의 回顧: 1929년 以後로」를 연재 발표하였다. 1931년 5월 12일～26일에 김광주는 『朝鮮日報』에 華漢의 「中國新文藝運動概論」을 총 11회에 걸쳐 번역 연재하였다. 김광주는 희극에 관심이 많

145) 김광주는 인체내부구조 하나 익히지 못한 자신이 돌팔이 의사가 되어 인체 해부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46) 김광주가 한국문단에 시・수필・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33년 1월부터인데 그에 앞서 김광주는 상하이에서 『보헤미안』동인지를 발간하는(총 6～7호를 발간) 한편 '보헤미안극사(劇社)'를 조직하여 자신의 작품 「벌레먹은 과실(果實)」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1934년 10월 19일 『동아일보』는 「上海에 朝鮮人劇團 보헤미안劇社 誕生」라는 제목으로 보헤미안극사의 공연 소식을 전했다.(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 소설의 번역」, 『中國文學 第87輯』, 2016, 82쪽 참조.)

았다. 희극에 관한 김광주의 번역글로는 『중앙일보』에 1931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린 鄭伯奇의 「中國新劇運動의 進路」와 『조선일보』 1932년 3월 16일~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번역 연재한 馬彦祥의 「現代中國戲劇과 劇作家」가 있다. 1935년에는 『時事旬報』 제31기에 「영화와 그 국민성(電影與它的國民性)」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중국문단의 현세 일별」에서 김광주는 1934년도 중국의 창작계를 소개하면서 "문단적으로 비교적 호평을 받는 중요 작품만을 대강 말하고 앞으로 환경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우수한 작품을 번역하여 그 전모를 소개해보고자 한다[147]" 고 전했다. 1935년에는 3월 1일 『文藝電影』 제1권 제4기에 「조선 문단의 최근 상황(朝鮮文壇的最近狀況)」 실렸다. 같은 해 『第一線』 제1권 제2기(1935)에 「문학에 뜻을 둔 청년들에게 드림(給志在文學的青年)」(中文으로 된 杉山平助의 글)을 번역하여 옮겼다.

김광주가 번역한 최초의 루쉰 작품은 「행복된 가정(幸福된 家庭)」[148]과 「술집에서(在酒樓上)」[149]이다. 「幸福된 家庭」의 「역자전언(譯者前言)」에서 김광주는 「幸福된 家庭」이 1931년 상하이 조욱서점(朝旭書店)에서 간행된 루쉰의 단편소설집 『행복한 가정(幸福的家庭)』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 했다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이는 그가 루쉰의 중국어 원작을 한국어로 옮긴 것임을 시사하며[150]. 1929년 여름에 처음 상하이에 올 때는 중국어 기초 실력이 전부였던 김광주가 불과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중역이 아닌 원작을 저본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김광주의 백화문 독해능력을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허나 김광주가 기타 루쉰 소설 초기 번역가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장점은 중국어 독해능력을 넘어서 중국어로 창작도 가능했다는 점이다.

1934년부터 김광주는 중국신문사『晨報』의 문예란 『每日電影』[151]에

147) 金光洲, 「中國文壇의 現勢 一瞥: 1年間의 論壇・創作界・刊行物界 等(四)」, 『동아일보』, 1935.2.8.
148) 魯迅 著, 金光洲 譯, 「행복된 가정」, 『조선일보』, 1933.1.29～2.5
149) 魯迅 著, 金光洲 譯, 「술집에서(在酒樓上)」, 『제일선(第一線)』3권1호, 1933.1.
150) 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소설의 의의」, 『中國文學』 第87輯, 2016, 105쪽.
151) 김광주의 회고에 따르면 그때 『晨報』의 문화면 『매일전영(每日電影)』의 편

중국어로 영화 관련 평론을 기고[152]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인 陆颂亚의 도움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暨南大學 영문학과 출신인 陆颂亚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김광주의 기사가 발표되기 전이나 발표된 후에도 중국어 文法으로부터 시작해서 章法에 이르기까지 형용사를 구사하는 技巧, 一言一句의 우열을 지적하고 가르쳐주었다. 이는 김광주와 훗날 중일전쟁 발발이후 김광주가 상하이를 떠나 해방 후 귀국하기 전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량의 중국어 창작에 임할 수 있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1월 김광주가 상하이를 떠난 뒤부터 귀국하기 전까지 8년가량의 시간동안 김광주의 중국어 창작물의 규모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100편을 상회한다. 이는 김광주가 『아Q정전』을 번역할 때 과감하게 원문과 거리가 있는 의역을 감행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행복된 가정」의 번역 원고가 마지막으로 연재된 1933년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동일지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시 「이 땅에 태어났거든」를 살펴보도록 하자. 형 金凍州가 마련해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길 대신 곤궁한 문학도의 길을 선택한 김광주의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시이

---

집장(編輯長)은 소설, 시나리오, 소품문 등으로 상하이문단에서 유명했던 姚蘇風이었는데 異國의 無名青年에게 『매일전영(每日電影)』에 글을 싣도록 문호를 개방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광주는 『매일전영(每日電影)』의 다른 문예란 『신의(晨蟻)』에 외국작가론, 작품소개나 수필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광주, 「上海時節回想記<上>」,1965, 269~270쪽.)

152) 김광주(본명은 김준배)는 '金光洲'나 '光洲', '洲', '波君', '淡如' 등의 실명, 또는 필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번역으로 명시된 평론이 있고 대부분 김광주가 직접 쓴 글로 되어있다. 본고 특성상 번역으로 명시된 글을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서양영화계의 총체적인 동향에 대한 소개문장들에는 「최근의 영국영화계 (最近之英國影壇) [1~4]」(1934,金光洲 譯), 「미국영화기업에 대한 분석(美國電影企業剖視)[1~4]」(1934, 金光洲 譯), 「소련영화계(蘇聯影壇)」(1935,波君 譯), 「1934년 영화계 경향의 하나-영화와 예술의 교향(一九三四影壇傾向之一:電影與文藝的交響)」(1934,波君 譯)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서양영화작품에 대한 소개글이나 영화상식이나 평론, 그리고 소감, 영화 간행물, 또는 유명 영화감독 등을 소개한 글들인데 번역으로 명신된 글로는 「할리우드 한담(好萊塢閑話)」(1935, 波君 譯), 「영화와 국민성(電影與它的國民性)」(1934, 金光洲 譯), 「컬러영화를 논함(論色彩電影)」 (1935, 淡如 譯), 「풍자영화의 기본문제(諷刺電影的基本問題)」(1935, 淡如 譯) 등이 있다. (김철,「상하이 신보(晨報)문예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영화소개 및 비평에 대한 소고」,『아시아문화연구』제45집, 2017, 465~468쪽 참조.)

자 문예에 대한 김광주의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이 땅에 태여난 것을 咀呪하지 안나니—
나는 이 時代에 태여난 것을 怨望하지 안나니— 不具者의 이 땅!
矛盾의 이 時代!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의 情熱에 불을 부처주는 힘이어던..... 힘어어던.....

벗이여! 나는 詩筆을 던지지 안으리니 억세
인 心臟의 鼓動이 끄치지 안는 날까지는
이 붓을 꺽거버리 안으리니
벗이여! 비웃지 말라!
—조밥덩이를 먹으며 詩를 쓰고 안젓는 어리석은 詩人

을 우리의 노래는 「압잡이」가 되리니
自由와 平和를 위한 피끌는 싸흠의
압잡이가 되리니 압잡이가 되리니
벗이여! 비웃지 말라!
「MACAW」의 꽁추를 줍고 안젓는 어리석은 詩人을 비웃지 말라!

—우리의 노래는 달콤한 自慰가 아니리니.....
—우리의 노래는 미지근한 陶醉가 아니리니
..... —H에게 보내노라7)

김광주는 ‘고리대금업’을 배우라는 ‘벗’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조밥덩이를 먹으며 시를 쓰고 앉은 어리석은 시인’이 되고자 다짐한다. ‘불구자의 이 땅! 모순의 이 시대!’ 현실이 오히려 시인의 ‘정열에 불을 붙여주는 힘’이 되어 시인인 ‘나’는

‘억센 심장의 고동이 그치지 않는 날까지’ ‘붓’을 꺾지 않으려는 강한 신념을 드러낸다[153].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보다는 정신적인 삶이 더욱 중요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부분은 정래동보다 양백화의 의식과 흡사하다. 끼니가 떨어져 원고료를 가불하여 달려 나가서는 책을 사서 돌아온 양백화를 두고 조용만은 “밥보다 책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석표는 같은 시기에 발표한 「봄은 오리니」라는 시에서 ‘센티멘탈이즘’을 거부하면서 “중풍병자(中風病者) 같이 쏠려 들어가는 이 땅에도/ 좀먹어 들어가는 우리의 넋 위에도/ 소생의 봄은 오리니.....”라고 읊은 것도9) 문예를 통한 민족적 계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54].

1938년 김광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상하이를 떠났다. 일본의 상하이 점령으로 상하이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상하이에 남아있는 한인들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특히 김광주가 상하이를 떠나게 된 계기는 일본영사관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지 않으면 평생 철창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은 터[155]라 더욱 그러했다. 70세 노모를 고국으로 보내야했던 김광주는 「상하이를 떠나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는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김광주가 ‘루쉰의 거룩한 정신’을 떠올렸다는 점이다.

> 그(루쉰을 가리킴—인용자)가 죽기 몇 달 전, 上海에 來訪한 野口米次郎과 주고 받은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도, 出帆을 期待리고 갑판에 서서 저물어 가는 浦東 一帶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길손의 가슴을 어디인지 찌르는 곳이 있다.

153) 위의 논문, 홍석표(2016), 78쪽.
154) 위의 논문, 홍석표(2016), 78쪽.
155) 발신인은 日本領事館特高課(일본의 간첩조직)였는데 문장의 유창함으로 보아 일본영사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인 密偵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장문의 편지에는 김광주의 사생활과 한국인청년들 틈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체의 소행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알고 있으며, 합작을 한다면 그때의 숙원인 中國文科系統大學院에 보내줄 것이고 매월 수백원의 학자금도 책임질 용의가 있다는 회유와 불응할 경우 24시간 내에 체포할 것이라는 공갈, 협박편지였다. (김광주,「上海時節回想記」, 349쪽.)

"自古 以來로 支那에서 소위 '成功者'라고 일컫는 人物들은 그 대부분이 政治나 文化 어느 방면을 물론하고 强盜가 아니면 詐欺漢, 둘 中의 하나이다. 可憐한 것은 民衆이다. … 그들은 政治의 主權者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던 그런 것을 念頭에 두 지 않고 마치 벌(蜂)떼 같이, 개아미(蟻)떼 같이 살아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甚히 悲慘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反面으로 생각해 볼 때 실로 이런 民族性 때문에 비록 '支那'는 滅亡하는 날이 있을지언정 '支那人'은 永遠히 滅亡치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如何튼 文壇의 第一人者이면서도 하로 한時도 安定된 '삶'을 갖지 못하고 때로 몸을 避하고 때로 이름을 갈고 눈을 감기 전날까지 藍빛 무명두루마기를 질질 끌며 그 긴소매에 두 손을 꽂고 思索하든 魯迅! '아들이 長成하거던 文學家를 맨들지말라'고 遺言에까지 저버리지 않은 그의 心境이 얼마나 쓰라렸을고! 志操를 지키기 위하여 괴로우고 아푸나 '淸廉'을 生命으로 삼고 죽기 前까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分錢이라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고 안해에게 付託하고 눈을 감은 魯迅의 거룩한 精神![156]

김광주가 상하이를 떠나던 시점은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김광주는 「상하이를 떠나며」에서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대지의 밤을 걷고 있는 이 한 이국(異國) 표랑객(漂浪客)의 우울한 마음이여! 나는 이 표랑(漂浪)의 항구의 회색빛 애상(哀傷)과 보랏빛 우울을 선물하고 장차 어느 항구로 또 피곤한 배머리를 돌릴 것인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길손의 노스탈쟈-여! 북국(北國)에 겨울바람 을 타고 고요히 고요히 자취 없이 사라지라! (끝了) 1월(一月), 톈진 여창(旅窓)에서....." 라고 말끝을 흐렸다[157].

그후 해방을 맞은 지 1년만인 1946년 8월과 11월에 김광주·이용규가 공역한 『루쉰단편소설집』 제1·2집(1946.8·11, 서울출판사)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단행본으로 나온 한국 최초의 루쉰작품집이자 루쉰의 주요

156) 金光洲, 「上海를 떠나며: 流浪의 港口에서」, 『동아일보』 1938.2.18·19.
157) 金光洲, 「上海를 떠나며: 流浪의 港口에서(完)」, 『동아일보』 1938.2.23.

소설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제1집에는 「행복한 가정(幸福的家庭)」, 「고향(故鄉)」, 「쿵이지(孔乙己)」, 「풍파(風波)」, 「가오선생(高老夫子)」, 「단오절(端午節)」, 「고독자(孤獨者)」가 수록되어 있고, 제2집에는 「광인일기(狂人日記)」, 「비누(肥皂)」, 「아Q정전(阿Q正傳)」이 수록되어 있다. 김광주는 원래 루쉰의 소설집 『외침(吶喊)』과 『방황(彷徨)』의 작품 전체를 완역하여 제3집까지 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제3집의 출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158].

여기까지 어학적, 사상적, 번역행위의 측면에서「아Q정전」의 초기 번역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세 사람의 생애와 번역 관련 이력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근대 속에서 탄생한 루쉰의 문학적 생애는 한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를 비추어주는 하나의 거울[159]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특수성만을 가진 거울이 아니라 동아시아적 보편성에 가 닿는 그러한 거울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쉰을 올바르게 읽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결국 번역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읽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루쉰 번역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루쉰 읽기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번역”이란 행위가 저자에게 다가갔다가 다시 독자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루쉰을 떠올린 김광주는 분명 다른 역자들보다 루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Q정전」을 번역한 세 명의 번역가 중에서 양백화는 계몽적인 의식에서 루쉰과 가장 근접했고 정래동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서 루쉰과 가장 닮았으며 김광주는 “절망”과의 거리에서 루쉰과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장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에 대한 고찰

158) 위의 논문, 홍석표(2016), 104쪽.
159) 전형준, 아Q정전,

중한 초기 번역의 문제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한중일 세 나라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 언문일치운동 이라는 공통적인 어학적 배경, 번역의 대상이 魯迅의 소설 중에서도 번역의 난이도가 상위급인 「아Q정전」, 번역주체가 이라는 맥락 하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에서는 번역자별 사회적 배경과 번역활동을 발전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던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세 명의 번역관을 도출 해 보았다. 이와 연계하여 원문에 따른 번역자의 해석이 번역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등 오독과 번역의 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3장에서는 언어의 不可譯性, 오역과 가능한 번역 사이의 경계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을 찾아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통해 번역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할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번역자별로 번역의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 제 1 절 사례를 통한 비교 검토

번역이론은 실천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검증의 단계에서 정교해지고 다시 실천으로 돌아와 현장의 검증을 받는다. 번역이론은 사례를 통한 비교 검토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며 그 실용적 가치가 입증되어 역자를 빛내주기도 한다. 중한 초기 번역의 문제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한중일 세 나라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 언문일치운동 이라는 공통적인 어학적 배경 하에 번역의 대상이 魯迅의 소설 중에서도 번역의 난이도가 상위급인 「아Q정전」이라는 맥락 하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하여 원문에 따른 번역자의 해석이 번역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등 오독과 번역의 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3장에서는 언어의 不可譯性, 오역과 가능한 번역 사이의 경계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을 찾아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통해 번역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할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번역자별로 번역의 특징이 도출되는 것이다.

### 3.1.1 양백화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1. 从我的文章着想

井譯: わたしの文章の着想からいふと
梁譯: 나의文章의着想으로부터 말을하면
丁譯: 나의 文章을 생각하여보면
金譯: 니의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필치로 생각해보면

분석: 원문의 "着想"을 이노우에는 명사 "着想(착상)"으로 인지하여 번역을 하였다. 이노우에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重譯을 한 양백화가 이노우에의 번역을 따라서 명사로 옮겼고 정래동은 "着想"을 동사 "생각하다"로 번역하였다. 김광주 또한 "着想"을 동사로 인지하였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원문에 없던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을 덧붙여서 옮겼다.

2. 便手舞足蹈的说

井譯: 彼は手振り足踏みして言った
梁譯: 발을굴으고 춤을추면서 말하얏다.
丁譯: 춤을추고 발을굴리면서
金譯: 별안간에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신이 나서 (…160)) 말했다.

분석: 원문의 "手舞足蹈"를 이노우에는 "손을 흔들다 (손짓)"의 뜻을 취하여 "手舞"를 "手振り"로 "足蹈"를 "足踏みして"로 나누어 번역하였고 양백화와 정래동은 모두 "手舞"를 "춤을 추다"로 번역하였다. 김광주는 "손짓"으로 옮기면서 원문에 없던 "별안간에"이라는 부사를 덧붙였다.

3. 这于他也很光采

160) 필자가 넣은 것, 원문과 관계없는 부분을 생략하고 대시 줄임표를 넣었다.

井譯: これで彼も非常な面目を施した
梁譯: 이것은 저도 매우 생각이 난다.
丁譯: 그(아Q)에게도 퍽 영광이다.
金譯: 이것은 그 자신에게도 매우 영광이라고

분석: 이노우에는 “光采”을 “면목이 서다”로 옮겼다. 양백화는 “매우 생각이 난다”로, 정래동과 김광주는 모두 “영광”으로 번역하였다.

4. 你怎么会姓赵！——你那里配姓赵！

井譯: お前は丶どうして趙という姓がわかった. 何处から其姓を分けた
梁譯: 너 어떠케 趙哥라는姓을알앗느냐—너 어듸서 그姓을딸앗느냐?
丁譯: 네가어떠케해서 성이 趙가이겠느냐, 네따위가姓이趙가야!
金譯: 이놈!네성이 조가라지? 네 따위 위인이 뭐 때문에 성이 조가란말야. 하참! 넷가진놈 조가가 될수 있을게 어느 세상이냐?

분석: 이노우에와 양백화는 모두 “会”를 ‘알다’로 인식하였다. 이어 이노우에는 “配”를 “나누다”로 양백화는 “따르다”로 번역하였다. 정래동은 “怎么会”를 “어떻게해서”로 김광주는 “뭐 때문에”로 번역하였다. “那里配”를 정래동은 “따위”로 옮겼고 김광주는 “넷가진놈”으로 뉘앙스를 살렸다. 이어서 김광주는 원문에 없는 “이놈!”과 “하참! 넷가진놈 조가가 될수 있을게 어느 세상이냐?”를 덧붙여 번역하였다.

5. 又未曾散过生日征文的帖子

井譯: そうして生年月日を書いた手帖などどこにも残っていないのだから
梁譯: 또生年月日을 적은手帖 가튼것도 남아잇지를 아니함으로
丁譯: 只今것 生日에詩文을바들어宣布한請託狀이업슴으로
金譯: 그리고 또 그가 자기 생일날 저명한 명사(名士)들과 같이 증문첩(徵文帖)을 배부 해본 일도 없었던지라

분석: 이노우에는 “帖子”를 “手帖”으로 인지하여 수첩으로 번역을 하였고 양백화는 이노우에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다. 정래동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번역문에 녹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였고 김광주는 원문에 없는 “자기”와 “저명한 명사(名士)들과 같이”를 추가하여 보충 설명하였다. 정래동과 김광주 모두 “帖子”로 인식하였다.

6. 我虽不知道是真没有, 还是没有查, 然而也再没有别的方法了

井譯: わたし自身としては本当にそれが無いといふことは言へないがもう此上は調べようもなく丶どうも仕方がないので
梁譯: 나의自身으로는설마로 그것이업다고 말할수는업지마는 인제는이우에더調查할수도업고 다시道理가업슴으로
丁譯: 나는참으로 업섯는지 그러치안하면 그사람이 調查를하지안하엿는지 알지 못하기는하지마는 인제는다시다른方法이엇섯다
金譯: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고향 친구의 조사가 불충분했는지 하여간 그 내용은 자세히 알수는 없지마는 나로서는 유감스럽게 그이상 더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분석: 이 문장에서 양백화는 이노우에의 번역을 고스란히 따랐다. “나의自身으로는”은 “わたし自身としては”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それが無いといふことは言へないが”또한 “그것이업다고 말할수는업지마는”으로 온전히 번역되었다. 김광주는 “그 내 고향친구”와 “유감스럽게도”을 추가하여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7. 瞪着眼睛道

井譯: 何かのはずみに目を瞠みはって
梁譯: 눈을 실죽하게뜨고서
丁譯: 눈을부릅뜬다
金譯: 눈을 부라리고 이런 말을 하는것이다

분석: 정래동의 지적대로 양백화의 번역은 오역이다. 눈을 “실죽하게” 뜰 때와 “부릅” 뜰 때 눈의 모양은 서로 다른데 원문의 의미는 눈을 “부릅뜬 것”과 일치하다. 이노우에의 번역에는 원문과 양백화의 번역에 없는 “何かのはずみに”라는 접속사가 추가되었다. 양백화가 중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문을 참조하여 번역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노우에, 정래동과 김광주의 번역은 모두 정확하다.

8. 你算是什么东西

井譯: 人をなんだと思っていやがるんだえ」というくらいが勢一杯だ
梁譯: 『너누구로아느냐!』하고 말하는것이긔ㅅ것하는 소리엇다
丁譯: 네까짓껏이 다 무어냐
金譯: 네놈이 도데체 뭐란 말이냐!

분석: 정래동은 양백화의 번역을 오역이라 지적하며 “긔ㅅ것하는 소리엇다“는 “原文에업는보탬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맞는 지적이다. 원문에는 없고 이노우에의 번역문에 등장하는 구절로 양백화의 번역이 이노우에의 重譯이라는 유력한 방증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노우에의 번역문에 “긔ㅅ것하는 소리엇다“에 해당하는 “というくらいが勢一杯だ”외에도 “いやがるんだえ”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양백화의 번역문에 없는 부분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양백화가 이노우에의 번역문을 참고는 하되 온전히 따르지 않고 원문과 대조하여 곰곰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방증이 된다. 김광주의 번역에는 원문에 없는 부사 “도데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김광주의 번역문에 자주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9. 这时阿Q赤着膊

井譯: 此時丶阿Qは臂を丸出しにして（支那チョッキをじかに一枚著ている）
梁譯: 이때 阿Q는팔둑을쑥내밀고
丁譯: 이때阿Q는 웃통을벗고

金譯: 바루 그때 “阿Q”는 우통을 벗어 부치고

분석: “膊”는 한국어로 경우에 따라 “팔뚝”과 “웃통” 두 가지로 모두 번역이 가능하다. 이노우에와 양백화는 둘 다“膊”를 “팔뚝”이라 번역하였고 이노우에는 괄호 안에 중국식조끼를 하나 직접 입고 있다고 특기하였다. 정래동과 김광주는 모두 “웃통”으로 번역하였다.

10. 他的老婆跳了三回井

井譯: 彼の祖母は三度井戸に飛び込んで三度引上げらた
梁譯: 그의祖母는세차례우물로 뛰어들어가 세번을건저내엿다
丁譯: 그안해(老婆)는 三次나 우물에빠졋다는곳이다
金譯: 그의 처는 세번이나 우물엘 뛰어 들어갔다

분석: 양백화의 오역에 대한 정래동의 지적은“老婆”를“祖母”로 오역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노우에가 일본에서는 “祖母”의 의미로 사용되는 “老婆”를 “祖母”로 오역하였고 일본어학과 출신이었던 양백화가 그 번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 또한 한중일이 같은 漢字文化圈이었기에 발생한 오역이며 양백화가 중국어 구어체에 얼마나 문외한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반면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해온 정래동과 김광주는“老婆”를 정확하게 “안해”와 “처”로 번역하였다. 양백화의 번역문에는“세번을건저내엿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이노우에의 번역문에서도 보인다. 그 부분이 바로“三度引上げらた”인데 이 구절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세 번을 끌어올렸다”라는 의미로 양백화의 번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3.1.2 정래동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1. 我并不知道阿Q姓什么
梁譯: 나는阿Q의姓이무엇인지도모지아지못한다

丁譯: ”阿Q”는姓도없고
金譯: 나는 사실상 “阿Q”의 성(姓)이 무엇인것조차 모른다

분석: 아Q의 姓에 대해 화자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정래동은 “없다”고 번역하였다. 저자에 의해 姓을 부여받지 못했으니 결국 姓이 없는 것은 맞는데, 이는 轉述者의 입장이고 아Q의 입장에서는 조씨 姓을 주장하려다 실패한 과정마저 생략당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애초부터 없는 것과 있는데 주장이 어려운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有無의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는 “모른다”는 표현이 맞다. 허나 이는 정래동이 다른 역자와 달리 원문을 요약 및 번역하여 소개하는 입장이라 발생한 오역으로 역자가 원문의 뜻을 曲解하여 발생한 오역과는 경우가 다르다. 과도한 의역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돌아와 역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양백화와 김광주는 모두 정확하게 번역을 하였으며 양백화는 “무엇인지” 끝에 조사 “도”를 넣어줌으로써, 김광주는 조사 “조차”를 덧붙여서 원문 중 “幷”의 뉘앙스를 살렸다. 또한 김광주의 번역은 일관성 있게 원문에 없는 부사 “사실상”을 추가하였다.

2. 被人揪住黃辯子，在壁上碰了四五个响头了

梁譯: 노랑辯子(머리꼬랑이)를 붓잡히어 壁에가 머리를 四五차례 주여백혓다
丁譯: 壁에다든지 어대든지대고 대여섯번 쥐어박은後에야말었었다
金譯: 층층 따 늘인 머리채를 뒤틀어서 담벼락에다 머리를 너더댓번 콩콩 쥐어 박고나서야

분석: 우선 정래동과 김광주의 번역에는 주체가 바뀌었다. 양백와의 번역문에는 수동태였는데 정래동과 김광주의 번역문에서는 능동태로 바뀌었다. 원문에 없는“어대든지대고”란 내용이 덧붙여졌고 김광주의 번역에는 “층층”과 “콩콩”이란 의성의태어가 추가되었다.

3. 打虫豸，好不好？

梁譯: 굼벵이(意譯)를 때린다고하면 조치?
丁譯: 버레를친다고하면좋지
金譯: 머! 짐승을 때린다구 하면 좋지안우

분석: 원문에서 “好”는 “좋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허락을 구하는 데 쓰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好不好？”는 “됐니”로 번역하거나 “그럼 됐니”로 번역해야 적절하다.

4. 我是虫豸——还不放么？

梁譯: 나는 굼뱅이다------그래도 놎치안니?
丁譯: 나는곳버레다……그래도놓지않으냐?
金譯: 나는 짐승이니까 ----이래도 나를 안 놔주려는가

분석: 양백화와 정래동의 번역은 문장 구조와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김광주의 번역에서 “나는 짐승이니까”는 앞문장의 “짐승을 때린다구 하면 좋지안우”와 연결되는데 이는 오역이다. 원문“打虫豸，好不好？ 我是虫豸——还不放么？”에서“我是虫豸”는 “好不好”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还不放么？”와 함께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문장 끊기를 잘못해서 발생한 오역이다.

5. 又和别人调笑一通

梁譯: 또달은사람과한바탕弄談을하고
丁譯: 다른사람들과 한바탕웃음의소리를하고
金譯: 또 사람들에게 놀림깜이 되고

분석: 양백화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 원문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한바탕 시시덕거리고”인데 정래동은 “又”에 대한 번역을 누락했다. 전후 맥락에 따라 능동태인“调笑”를 수동태인 “놀림깜이 된”것으로 오역을 했고“一通”에 대한 번역 또한 생락했다.

6. 这可难解

梁譯: 이것은 알수업는노릇이지마는
丁譯: 이것은解決하기어렵지마는
金譯: 이점은 참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분석: 양백화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 원문의 “解”를 정래동은 “解決”로, 김광주는 “해석”으로 오역했다.

7. 很想寻一两个大的

梁譯: 그는꼭큰놈한두어마리를 잡아내랴고
丁譯: 두서너마리잡아서
金譯: 그래서 “阿Q”는 하다못해 한마디든지 두마리든지 간에 큰놈을 잦아내려고

분석: 정래동은 “想”을 누락하여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잡아내려고”를 이미 “잡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두어 마리를 두서너 마리로 치환했다. 허나 뒷문장이 이어질 경우는 상황에 따라 오역이 아닐 수도 있다. 김광주는 원문 “一两个”에 대한 번역을 “한마리든지 두 마리든지”라고 바꾸어 옮겼다. 이어 김광주는 원문에 없는 부사어 “하다못해”를 덧붙여 문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으나 이는 “很”의 실종을 댓가로 한 것이었다. 양백화는 간결하게 “한두어마리”로 옮겼다. 세 명 중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보인다.

8. 谁不知道你正经……

梁譯: 누가자네 潔白한출을 모르나……
丁譯: 누가 자네의옳은시를몰은는가.
金譯: 누군들 네가 틀려다고 하겠니……

분석: 원문에서 “正经”은 “정숙함”의 의미로 쓰였는데 세 명의 번역

중에는 양백화의 번역이 비교적 원문에 가깝다. “正经”은 『홍루몽』을 포함한 여러 고전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에 장기간 심혈을 기울여 온 양백화의 경력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정래동과 김광주는 모두 “正经”을 “是非”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오역을 하였다. 양백화와 김광주는 원문에 있던 줄임표를 그대로 옮겼는데 정래동의 번역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래동의 부주의로 인한 누락이 아니라 번역문이 아니라 요약문인 관계로 인한 생략으로 보인다.

9. 短见是万万寻不得的
梁譯: 아에 그러생각 먹지말게
丁譯: 短見을내서는못써
金譯: 그러니 그런 쓸데 없는 실없은 생각은 애당초에 틀린 생각인거야……

분석: 원문에 있는 “短见”의 번역에 대해 양백화와 김광주 모두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정래동은 중국에서 “寻短见”이 “자살”을 뜻함을 모르고 “见”자에 초점을 맞추어 “短见을 내다”로 번역을 하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부사 “万万”에 대한 번역이다. 정래동은 요약문답게 부사에 대한 번역을 생략했고 양백화는 원문에 충실하게 부사 “아예”로 옮겼다. 허나 김광주는 부사 대신 형용사 “쓸데없는”, “실없는” “틀린”을 연이어 세 개나 나열하여 “생각”을 수식하였다. 또한 김광주는 원문에 없는 줄임표를 덧붙여 여운을 남기고자 하였다.

10. 有一封长信，和赵家排了“转折亲“
梁譯: 닷발이나되는便紙를뽀내어 趙氏집과 “하위”(和解)를한양십흐다
丁譯: 長篇의편지를써서 그前에새이가좋지못한趙秀才에게보내서和解를하고
金譯: 길다란 한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편지에다가 조가네하고는 “먼 친척”이라고 했다 한다.

분석: 양백화와 정래동은 모두 “转折亲”을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오독했다. 따라서 그 편지를 화해의 신호로 본 것이다. 허나 “转折亲”의

의미는 “사돈의 팔촌” 만큼이나 먼 친척관계로 그 장문의 편지는 화해를 청하는 서신이 아닌 먼 친척관계라도 살려보고자 보내는 편지이다. 김광주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며 양백화는 “장문의 편지”를 “닷발이나 되는 편지”로 의역을 하며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 3.1.3 김광주 번역을 중심으로 한 비교

1. 仿佛思想里有鬼似的
金譯: 어쩐지 그생각이 도깨비한테 홀린것처럼 허리둥절 해져서 두서를 가릴수가 없어지고 어리뻥뻥 해지고 마는것이다.
梁譯: 思想우에무슨魔가튼것이잇서 結末이위퉁퉁 뒤퉁퉁하야진다

분석: 양백화는 “思想”을 한자어 그대로 옮겨 “思想”이라고 번역하였고 김광주는 고유어인 “생각”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양백화는 한자어 “魔”, “結末”을 번역문에 넣었고 김광주는 “도깨비한테 홀린것처럼”이란 한글표현을 사용하였다. 두 사람 모두 “허리둥절”, “어리뻥뻥”, “위퉁퉁”, “뒤퉁퉁” 등 부사어를 많이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2. 但文豪则可，在我辈却不可
金譯: 그러나 이 저술은 문호이기 때문에 넉넉히 지을 수가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이 될수 없는 일이다.
梁譯: 그러나이는 文豪나할일이요 우리따위의할일은못된다

분석: 김광주의 번역에는 원문에 없는 부사어 “넉넉히”, “도저이”가 추가되었다. 이에 반해 양백화의 번역은 간단명료하게 잘 번역하였다.

3. 文体卑下，是“引车卖浆者流“所用的话
金譯: 내 필치는 한 개의 간장 구루마나 껄 인간의 저속한 필치인지라
梁譯: 文體가淺近하야수레를끌고漿을팔라다니는사람들의 노닥어리는말을 쓴까닭에

분석: 양백화는 원문의 “文体卑下”를 한자어“文體”와 “淺近”을 한자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김광주는 한자어지만 한글 “저속한 필치”로 바꾸어 옮겼다. 원문 “引车卖浆者”에서 “浆[161]”을 양백화는 “浆”그대로 옮겼고 김광주는 “간장”으로 인지하여 오역하였다. 양백화의 번역문에 “노닥어리는”은 원문에 없는 표현이다. 양백화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는 문장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기울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 “悔不该……”
金譯: “뒤ㅅ일은 후회할 것 없다!”
梁譯: “後悔하지말아라!”

분석: 두 사람의 번역 모두 오역이다. 원문의 의미는 “…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것이다.

5. 所谓“闲话休题言归正传“
金譯: 소위 한화휘제언(閑話休題言)이 “정전”(正傳)이 될수 있다는
梁譯: 所謂閑話休題言歸正傳이라

분석: 김광주는 원문을 “閑話休題言”과 “正传”두 단위로 끊어 독해하면서 “归”를 서술어로 인지하고 번역하였다. 양백화는 원문을 한 덩어리로 간주하고 번역하였다.

6. 有一回，他似乎是姓赵，第二日便模糊了
梁譯: 한번그는趙哥라고말을한듯한데 그것도 그이틀재되든날에는 우물주물하엿다
金譯: 왜 그러냐 하면 “阿Q”는 어느때는 성이 조(趙)가인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당장에 흐리멍덩해저셔 어물어물 하고 마는 것이다.

161) 1931년 3월 3일 魯迅이 山上正義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漿”은 “豆腐漿”을 뜻한다.

분석: 원문에서 “模糊了”의 주어는 “아Q가 趙氏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따라서 “模糊了”는 “모호해졌다”로 번역해야 타당하다. 허나 양백화와 김광주는 모두 주어를 “他”로 보았기에 양백화는 “우물주물하였다”로 김광주는 “어물어물 하고 마는 것이다”라고 오역한 것이다. “有一回”를 양백화는 “한번”으로 김광주는 “어느때”로 번역하였는데 양백화의 번역이 원문에 가깝다. 원문에는 “말을 했는데”에 해당되는 문구가 없음에도 두 사람 모두 소설 맥락에 근거하여 의역을 하였다. 그 외에 김광주의 번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과 “당장에 흐리멍덩해저셔”는 원문에 없는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7. 这不是儿子打老子
金譯: 이것은 애들이 어른을 때리는 것 아닐세
梁譯: 이것은 어린아희가아비를 때리는것어아니요

분석: 원문은 “아이”와 “어른”의 관계가 아닌 “父”와 “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광주의 “애들”과 “어른”, 양백화의 “어린아희”는 모두 오역이다. “儿子”는 “자식”으로 “老子”는 “아비”로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8. 不入三教九流的小说家
金譯: 셋을 배우되 아홉을 잊어버릴 부루에도 못가는 소설가
梁譯: 三敎九法의數에도 들지안흔
분석: 두 사람의 번역 모두 오역이다. 원문의 “三教”는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를 이르는 말이고 “九流”는 제자백가[162]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9. 而带孝是晦气的
金譯: 그리고 그 상복은 더군다나 옷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보기싫었다.
梁譯: 葬式의옷을 입는것은 不吉한까닭이다

162) (九流)는 유가(儒家)·도가(道家)·음양가(陰陽家)·법가(法家)·명가(名家)·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잡가(雜家)·농가(農家)를 이른다.

분석: 김광주의 번역은 오역이다. 원문의 “晦气”는 “재수없다”는 뜻으로 양백화는 번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다.

10. “无师自通”的说出半句从来不说的话

金譯: “스승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통하느니라”라는 그가 종래에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입에 붙여본 일이 없는 이 말을 불렀던것이다.
梁譯: 이때까지 말하야본일이업는 이말을 『無師自通』으로 半만말하얏다

분석: 김광주는 “无师自通”를 목적어로, “半句”를 성어로 판단하였다. 그와 달리 양백화는 “无师自通”을 성어로 판단하고 옮겼다.

## 제 2 절 중한 초기 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

번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 문제는 크게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의도와 해석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언어의 문제는 다시 문법 파악의 문제와 의미 파악의 문제로 나뉘고 문화의 문제는 한자어, 관용어, 구어체의 문제로 세분화되며 의도와 해석의 문제는 과잉 번역의 문제, 의도적 오역의 문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법과 의미 파악 등 언어의 문제는 원문의 난이도, 역자의 교육과정과 직결되어 있고 본문에서의 한자어, 관용어, 구어체 등 문화의 문제는 해당 언어의 현지 체험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현장체험의 결여문제는 대량의 독서체험으로 대체 혹은 보완이 가능하다. 유독 해당 외국어의 창작경험 유무는 언어의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나 보완이 어렵다. 한자어의 문제는 한중일 모두 동일 한자권(漢字圈)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별 한자어에 대한 인식문제인데 어학적 분류로는 어학의 문제이나 한중일이라는 맥락 하에서는 문화차이로 귀결된다. 의도와 해석의 문제는 저자의 의도와 역자의 의도에서 우선 차이가 발생하며 해석의 문제는 역자의 번역관과 직결되어 있다.

## 3.2.1 언어의 문제

### 3.2.1.1 문법 파악의 문제

중국현대문학의 경우, 중한 초기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그중 문법 파악의 오류는 보통 역자가 원문 단어 품사나 통사구조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잘 못하여 생기는 오역 현상이다. 흔히 문장 끊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역자의 문법 실력의 빈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오독이 오역을 부른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역자의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魯迅의 「아Q정전」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문법 파악의 문제에 속하는 번역사례는 다음과 같다.

2-4. 我是虫豸——还不放么？

金譯: 나는 짐승이니까 ----이래도 나를 안 놔주려는가

2-5. 又和别人调笑一通

金譯: 또 사람들에게 놀림깜이 되고

3-1 仿佛思想里有鬼似的

梁譯: 思想우에무슨魔가튼것이잇서 結末이위퉁퉁 뒤퉁퉁하야진다

3-5. 所谓“闲话休题言归正传“

金譯: 소위 한화휘제언(閑話休題言)이 “정전”(正傳)이 될수 있다는

3-6. 有一回，他似乎是姓赵，第二日便模糊了

梁譯: 한번그는趙哥라고말을한듯한데 그것도 그이틀재되든날에는 우물주물하엿다

金譯: 왜 그러냐 하면 “阿Q”는 어느때는 성이 조(趙)가 인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당장에 흐리멍덩해저셔 어물어물 하고 마는 것이다.

### 3.2.1.2 의미 파악의 문제

중한 초기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 중에서 문법 파악의 문제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오류가 바로 의미파악의 문제이다. 여기서 의미파악은 단어나 구절, 문맥의 파악이나 표면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의미 파악을 뜻하기도 한다. 魯迅의 「아Q정전」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문법 파악의 문제에 속하는 번역사례는 다음과 같다.

1-3. 这于他也很光采

梁譯: 이것은저도 매오생각이난다.

金譯: 이번 일은 나도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유쾌하다고

1-4. 你怎么会姓赵！——你那里配姓赵！

井譯: お前は丶どうして趙という姓がわかった. 何処から其姓を分けた

梁譯: 너 어떠케 赵哥라는을알앗느냐—너 어듸서 그姓을 딸앗느냐?

1-6. 我虽不知道是真没有, 还是没有查, 然而也再没有别的方法了

井譯: わたし自身としては本当にそれが無いといふことは言へないがもう此上は調べようもなく丶どうも仕方がないので

梁譯: 나의自身으로는설마로 그것이업다고 말할수는업지마는 인제는 이우에더 調查할수도업고 다시道理가업슴으로

1-7. 瞪着眼睛道

梁譯: 눈을 실죽하게뜨고

2-5. 又和别人调笑一通

丁譯: 다른사람들과 한바탕웃음의소리를하고

분석: 예문 1-4.에서 김광주는 우선 원문에 없는 “이놈!”과 “하참! 넷가진놈 조가가 될수 있을게 어느 세상이냐?”를 추가하였다. 게다가 첫 구절에서는 원문에서 “你怎么会”의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네가 어떻게”라는 뉘앙스를 “듣자 하니”의 뉘앙스로 바꾸어 “분노의 감정”을 거세했다. 이어 김광주는 원문에 없는 “하참!”과 “어느 세상이냐?”를 등장시킴으로써 원문의 “분노”를 순식간에 “한탄조”로 바꾸어버렸다. 김광주의 번역에 자주 등장하는 과잉번역과 저자의 의도 파악에 실패한 가장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정래동은 원문의 의미에 대해 정

확하게 인지는 하였으나 “那里”에 대한 번역을 생략함으로써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원문에서는 “怎么会”에 이어 “那里配”를 연발함으로써 감정이 점점 과격해지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정래동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원문에서는 “怎么会”와 “那里”가 같은 의미로 기능하는데 후자에 대한 생략보다는 “어찌”와 “어떻게”로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동어반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원문의 의도를 살렸다면 더욱 좋은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다. 번역문 중에 오역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 다소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면 “조가”라는 호칭이다. 씨(氏)와 가(哥)는 모두 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통념상 가(哥)는 스스로를 낮추거나 상대방을 하대하여 부를 때 사용되고 씨(氏)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사용된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姓赵”라는 표현 뒤에 덧붙인 느낌표, 이는 일개 날품팔이꾼인 아Q가 은근슬쩍 “조씨”성에 편승하여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데 대한 자오 나리의 불쾌감이자 본인의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분노의 상승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신분차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면 “조가”라는 표현보다 누군가를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 “조씨”가 더 나은 번역이 라 할 수 있겠다.

## 3.2.2 문화의 문제

### 3.2.2.1 한자어의 문제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로 나뉘는데 그중 한자어의 비율이 약 70%가량 차지한다. 일본 또한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는데 특히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는 서양의 많은 학술용어들이 일본식 한자어로 번역되었고 대부분 그대로 한국에 유입되었다[163].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자어는 한중일 3개국에서 의미, 품사, 용법

163) 魯迅을 포함한 중국의 梁啓超, 周作仁, 郁達夫, 郭沫若, 田漢, 周恩來 등 유명 인사들이 일본에 머물거나 유학하면서 창작과 번역활동을 통해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자어 중에 형태는 같으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동형이의어(同形異意語)라고 하며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이나 특성을 多義性이라 하는데 경우에 따라 한자 하나에 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했다. 한자어에서의 오독과 오역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1. 从我的文章着想

井譯: わたしの文章の着想からいふと

梁譯: 나의文章의着想으로부터 말을하면

丁譯: 나의 文章을 생각하여보면

金譯: 니의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필치로 생각해보면

2-6. 这可难解

梁譯: 이것은 알수업는노릇이지마는

丁譯: 이것은解決하기어렵지마는

金譯: 이점은 참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8. 谁不知道你正经……

丁譯: 누가 자네의옳은시를몰은는가.

金譯: 누군들 네가 틀려다고 하겠니……

분석: 예문 1-1는 “着想”에 대한 이노우에와 양백화의 오독이 바로 품사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국에서는 “着想”이 동사로 쓰였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사와 명사 두 가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노우에와 양백화는 “着想”을 명사 “착상”으로 정래동은 동사 “생각하다”로 서로 달리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가 오역을 한 이유는 일본어에도 “着想”이란 단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著想”이 동사 외에 명사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백화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노우에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着想”이란 단어가 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

---

일본 한자어 차용(借用)에 일조했다. 魯迅이 차용한 일어 한자어만 1180개에 달한다.

문, 더 나아가서 이는 한중일 3국이 같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역이라 할 수 있겠다. 정래동의 번역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번역으로 가장 원문에 가깝다. 예문 2-6은 어휘의 多義性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解”는 “풀이하다”, “깨닫다”, “설명하다”, “해결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양백화는 “알다”로 정래동은 “해결하다”로 김광주는 “해석하다”로 각기 달리 이해하였다. 원문 難解는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 2-8에서 “正经”은 “사람의 품행이나 태도가 바르고 단정함”의 뜻도 있고 “정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번역문에서 정래동과 김광주는 모두 후자의 뜻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九分”, “十二分”, “放心” 등 한자어가 보인다.

#### 3.2.2.2 관용어의 문제

중한 초기번역에 나타나는 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오류의 하나가 관용어의 문제,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의 관용어의 형성에는 모두 유서 깊은 역사가 존재함으로 이는 백화문이나 회화실력만 탁월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백화의 한문 실력이 빛나는 순간이다.

1-2. 便手舞足蹈的说

梁譯: 발을굴으고 춤을추면서 말하얏다.

3-5. 所谓“闲话休题言归正传“

金譯: 소위 한화휘제언(閑話休題言)이 “정전”(正傳)이 될수 있다는

3-8. 不入三教九流的小说家

金譯: 셋을 배우되 아홉을 잊어버릴 부루에도 못가는 소설가

梁譯: 三敎九法의數에도 들지안흔

3-10. “无师自通”的说出半句从来不说的话

金譯: “스승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통하느니라”라는 그가 종래에 일언반구 (一言半句)도 입에 붙여본 일이 없는 이 말을 불렀던것이다.

분석: 예문 1-2.에서 “手舞足蹈”는 뒤에 “的”를 덧붙여 부사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그 의미는 “춤이라도 출 듯” 혹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手舞足蹈”라는 사자성어로 형용한 것이지 실제로 춤을 춘 것은 아니다. “手舞足蹈”의 출처를 살펴보면 『诗经・周南・关雎・序』중의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에서 비롯된 말인데 “舞”가 “手”와 결합하여 “手舞足蹈”의 맥락 하에 사용될 경우, 한국어로는 “손을 흔들다 (손짓)”와 “춤을 추다”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양백화는 후자로 인식하고 번역하였다.

예문 3-5.에서 양백화는 중국 고전문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闲话休题言归正传“의 유래와 그 의미 및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여 원문의 따옴표를 빼고 所謂까지 한자어 그대로 옮겨 깔끔한 번역을 선보였다. 반면에 김광주는 한문에 서툴렀기에 원문의 “闲话休题言归正传“가 중국 章回體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통째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여 김광주는 “闲话休题言归正传”에 대한 해체를 시도하였으나 “闲话休题”와 “言归正传”두 문장으로 끊어야 하는데 “闲话休题言”과 “正传”로 끊어서 해석하고자 하였으니 오역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양백화와 김광주 두 사람의 언어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번역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문 3-10.의 번역에서 김광주는 “无师自通”이 사자성어임을 몰랐다. 이는 원문에 대한 문법 파악의 오류이기도 하다. 원문에서 서술어 “说”의 목적어는 “无师自通“이 아니라 “话”였고, “无师自通“은 “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며 “半句”와 “从来不说”는 모두 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인 것이다, 양백화의 번역이 가장 적절해보인다.

### 3.2.2.3 구어체의 문제

구어체의 문제는 번역가의 언어구성의 문제이다. 해당언어로 독서의 영역에만 사용했는지 구어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사용했는지에 따라 우열이 갈리고 당락이 결정된다.

2-3. 打虫多，好不好？

梁譯: 굼벵이(意譯)를 때린다고하면 조치?

丁譯: 버레를친다고하면좋지

金譯: 머! 짐승을 때린다구 하면 좋지안우

2-9. 短见是万万寻不得的

丁譯: 短見을내서는못써

3-7. 这不是儿子打老子

金譯: 이것은 애들이 어른을 때리는 것 아닐세

梁譯: 이것은 어린아희가아비를 때리는것어아니요

3-9. 而带孝是晦气的

金譯: 그리고 그 상복은 더군다나 옷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보기싫었다.

분석: 예문 2-3.에서 "虫豸"에 관한 세 역자의 번역은 서로 다르다. 아Q가 "하찮은"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단어임을 고려해보면 저자의 의도로 보나 "虫豸"의 뜻으로 보나 "짐승"으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양백화는 "虫豸"을 "굼벵이"로 번역하고 괄호 안에 意譯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역자가 "虫豸"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뜻하며 국내 독자층을 고려한 친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을 한국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한국독자들에게 친숙한 단어인 "굼벵이"를 택한 것이다. 허나 "굼벵이"가 독자들에게 안겨주는 느낌이 "느림"에 있는 데 반해 저자의 의도는 "작음"에 있기에 이 또한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虫豸"는 "벌레"나 "버러지"로 번역이 가능하며 정래동의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 김광주의 번역은 일관성 있게 원문에 없는 감탄사 "머!"를 덧붙여 문장의 생동감을 살렸다.

### 3.2.2.4.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역

문화차이는 단지 국가와 국가지간,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살 경우, 같은 국가에 동일한 민족이라도 문화차이가 생긴다. 예컨대 다음 사례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북방사람들은 오독을 할 가능성도 있다.

1-5. 又未曾散过生日征文的帖子

梁譯: 그리고 또生年月日을 적은 手帖가튼것도 남아잇지를 아니함으로…

丁譯: 只今것 生日에詩文을바들어宣布한請託狀이업슴으로…

金譯: 그렇지만 그럼직한것을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 그리고 또 그가 자기 생일날 저명한 명사(名士)들과 같이 증문첩(徵文帖)을 배부 해본 일도 없었던지라

1-9. 这时阿Q赤着膊

井譯:此時丶阿Qは臂を丸出しにして（支那チョッキをじかに一枚著ている）

梁譯: 이때 阿Q는팔둑을쑥내밀고

2-10. 有一封长信，和赵家排了“转折亲“

梁譯: 닷발이나되는便紙를뽀내어 趙氏집과 “하위”(和解)를 한양십흐다

丁譯: 長篇의편지를써서 그前에새이가좋지못한趙秀才에게보내서 和解를하고

3-3. 文体卑下，是“引车卖浆者流“所用的话

金譯: 내 필치는 한 개의 간장 구루마나 껄 인간의 저속한 필치인지라

분석: “名士”란 단어에 이미 “저명한”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 구절에 같이 등장시킴으로써 장황한 번역이 되어버렸다. 蛇足을 덧붙인 셈이다. 네 명의 번역 중에는 정래동의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허나 원문에서의 “赤着膊”는 “赤膊”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반신을 노출”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膊”를 “웃통”으로 옮긴 정래동과 김광주의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다.

### 3.2.3 의도와 해석의 문제

### 3.2.3.1 과잉 번역의 문제

과잉번역의 경우 오역과는 상황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오역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는 개인성향이나 번역습관의 차이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역의 의도 혹은 번역의 목적에 따라 원문과 가장 거리가 먼 과잉 번역이 오히려 적합한 번역일 수도 있다.

1-4. 你怎么会姓赵！——你那里配姓赵！

金譯: 이놈!네성이 조가라지? 네 따위 위인이 뭐 때문에 성이 조가란말야. 하참! 넷가진놈 조가가 될수 있을게 어느 세상이냐?

1-10. 他的老婆跳了三回井

井譯: 彼の祖母は三度井戸に飛び込んで三度引上げらた

梁譯: 그의祖母는세차례우물로 뛰어들어가 세번을건저내엿다

2-2. 被人揪住黃辫子，在壁上碰了四五个响头了

金譯: 층층 따 늘인 머리채를 뒤틀어서 담벼락에다 머리를 너더댓번 콩콩 쥐어 박고나서야

2-7. 很想寻一两个大的

金譯: 그래서 “阿Q”는 하다못해 한마디든지 두마리든지 간에 큰놈을 잦아내려고

2-9. 短见是万万寻不得的

金譯: 그러니 그런 쓸데 없는 실없은 생각은 애당초에 틀린 생각인거야……

분석: 예문 1-10. 정래동과 김광주의 번역은 모두 원문과 일치하나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보인다. 정래동은 원문의 “跳井”에 대해 “우물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김광주는 “우물에 뛰어들다”로 번역하였다. 중국에서 16년이란 세월을 보내며 중국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김광주는 “跳井”와 “落井”의 구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이노우에와 양백화 모두 “우물에 뛰어들다”로 정확하게 번역하였다. 예문 2-2. 이는 아무래도 다른 역자와 달리 정래동은『아Q정전』의 내용을 요약하여 번역 및 소개를 하는 입장이라 구절 對 구절式의 번역보다는 전후맥락을 염두에 둔 번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덧붙인 김광주는 번역에는 원문에 충실하

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번역문의 생동감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 3.2.3.2 의도적 오역의 문제

의도적인 오역은 의외로 범위가 가장 넓다. 독자층에 대한 배려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역자의 선택으로 이루진 것 일수도 있다.

1-8. 你算是什么东西

井譯: 人をなんだと思っていやがるんだえ」というくらいが勢一杯だ

梁譯: 『너누구로아느냐!』하고 말하는것이긔ㅅ것하는 소리엇다

2-1. 我并不知道阿Q姓什么

金譯: 나는 사실상 “阿Q”의 성(姓)이 무엇인것조차 모른다

2-2. 被人揪住黃辫子，在壁上碰了四五个响头了

丁譯: 壁에다든지 어대든지대고 대여섯번 쥐어박은後에야말었었다.

## 제 3 절 번역의 특징

번역가의 성장 및 교육과정은 번역 특징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백화는 소싯적부터 한문을 배워 한문 실력이 뛰어났고 한성일어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도 탁월했다. 양백화의 계몽의식은 梁啓超의 영향을 받았고 번역관은 嚴復의 信·達·雅의 영향을 받았다. 양백화는 원문의 충실성에 있어서 번역할 때 言을 넘어 聲을 기록하고자 하였고 形을 넘어 그 神을 전하고자 하였다. 언어의 不可譯性에 이르러 양백화는 축자역보다 의역을 선택하였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였다. 정래동은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근대식 교육을 받았고 일본으로 떠나 6년간 유학생활을 하다가 1924년 중국 베이징에 유학을 떠나 10년간 영어공부와 중국문학에 전념하였다. 문법을 정확하게 배워 정래동은 양백화와 마찬가지로 嚴復의 信·達·雅의 영향을 받았는데 언어의 不可譯性에 이르러 정래동은 직역방식을 선택하였

다. 김광주는 초등학교 때부터 근대식교육을 받았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창작까지 하면서 중국에 16년간 머물렀기에 백화문의 실력이 뛰어나지만 한문 실력이 그의 한계였다.

### 2.2.1 양백화 번역의 특징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례 중 양백화의 오역은 총 16개이며 이는 오역사례 중 39%의 비율을 차지한다. 16개의 오역 중에서 중역으로 인한 오역은 6개이며 양백화가 범한 오역의 총 37.5%를 차지한다. 양백화의 오역은 통사구조에서 단어 선정까지 놀랄 만큼 이노우에의 오역에 대한 "충실성"을 갖추었다. 또한 양백화의 번역은 이노우에의 번역은 참고하되 魯迅의 원문과 곰곰이 대조하는 번역태도를 보였다.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틈틈이 신문에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하는 등 독자 반응에 신경을 썼고 또한 번역할 때 어휘 선정에 고심한 흔적도 더러 나타난다.

장시간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에 심취해온 경력과 어울릴 만큼 한문 실력이 뛰어나 한자어와 관련된 관용어의 번역에서는 오역이 적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번역 형태를 띤다. "闲话休题言归正传"이며 "思想","魔","文體","淺近","正经" 등 한자어에 대한 능수능란한 번역은 양백화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老婆"를 "祖母"으로 오역한 일화는 양백화의 언어체계 중 白話文의 허점[164]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930년 정래동에 의해 오역을 지적당한 뒤 양백화는 오랜 기간 침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백화는 1935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每日申報』에서 林紓를 소개하며 胡適 다음으로 긴 편폭을 할애했다. 양백화는 林紓의 장점으로 방대한 양의 번역, 유창한 문장, 충실한 태도를 꼽았다. 林紓의 단점으로 양백화는 'ABC도 알지 못하는 林紓가 무상식한 口譯者를 잘못 만나' 범한 착오 "二流 以下의 作品, ...소설과 희곡의 혼동, ...원문의 임의 산절(刪節)[165]" 등 세 가지로 꼽으며 아쉬워했다. 중

164) 梁白華,「筆談하다 대실수」,『梁白華文集 3』(산문・평론), 33쪽

국말을 못하는 양백화와 영어를 모르는 林紓, 그 口譯者를 말하면서 양백화가 이노우에(井上紅梅)를 떠올렸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공교로운 점은 양백화가 꼽은 그 항목들이 胡適이 주장하는 번역원칙[166]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 인데 그동안 실천해왔던 양백화의 번역태도를 곱씹어보면 그의 번역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1921년 1월 17일 胡適에게 보냈던 장문의 편지에서 양백화는 "조선의 청년을 깨우칠 胡適의 논고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1929년 조선어학회에서 주도한 조선어편찬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新語語錄의 편찬을 담당했던 양백화, 그 사상의 근저를 살펴보면 늘 계몽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嚴復의 번역원칙 信・達・雅의 영향을 받은 胡適과 梁啓超, 梁啓超의 영향으로 그의 「近世第一大哲康德之學說」을 저본으로 「西哲康德格致學說」을 번역하여 발표한 양백화, 양백화와 胡適의 번역태도가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嚴復의 信・達・雅를 떠올려보면,

## 3.2.2 정래동 번역의 특징

제2장에서 살펴본 번역사례 중 정래동의 오역은 총 7개이며 이는 오역사례 중 35%의 비율을 차지한다. 정래동의 오역 비율은 세 명중 가장 낮았으며 문법 파악에 탁월하여 의미 파악의 오류로 인한 오역이 적다. 1924년 여름 22세의 나이에 북경에 도착한 정래동은 하숙집에서 중국어 개인교습을 매일 한 시간씩 받고 그날 배운 부분은 백회이상 읽기를 꼬박 5년 동안 지속했다고 한다. 일본 유학 7년에 북경의 民國大學 영문학과 4년, 이러한 경력은 정래동의 탄탄한 어학실력에 뒷받침이 되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래동 번역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문장의 생동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의성의태어, 부사어의 사용이 김광주보다 월등히 낮다는 점이다. 정래동의 번역에 축자역이 많고 딱딱한 직역이라는 평에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嚴復이『天演論』의 「譯例言」에서 처

165) 梁白華,「林紓」,『梁白華文集 3』(산문・평론), 328~329쪽

166) "译书第一要对原作者负责，求不失原意：第二要对读者负责，求他们能懂；第三要对自己负责，求不致自欺欺人".(梁曉茹,「胡適翻譯思想研究」,碩士學位論文,河北大學,,2009,p13.)

음 주장하였고, 그 후 정래동을 포함한 수많은 번역가들의 지침이 되었던 번역 3원칙 「信・達・雅」에 대한 공감이 정래동의 번역 특징 형성의 주된 원인이겠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다른 세 명의 역자와 달리 정래동의 번역은 『阿Q正傳』에 대한 완역이 아니었다. 魯迅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던 작업 중 일부분인『阿Q正傳』의 줄거리에 대한 요약이었다. 작품을 오롯이 번역하는 작업이 아닌 요약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래동의 번역문에서 부사와 의성의태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함은 당연지사였다.

정래동은 4명의 역자 중에 유일하게 한중영일 4개 국어를 섭렵하였고 고전과 현대문학에 모두 익숙한 번역자였다. 자국화(domestication)보다는 「信・達・雅」 번역관의 소유자이기에 오히려 정래동은 魯迅의 소설 중에서『阿Q正傳』의 번역이 왜 어려운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자라고 할 수 있다. 魯迅 소설 특히 『阿Q正傳』의 언어 특징이 放縱보다는 節制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래동이 難解함을 누차 강조[167]하는 그 이면에는 타자에 대한 경계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향한 고문일지도 모른다. 『阿Q正傳』의 번역이라는 그 벽, 넘고 싶고 또 넘을 수 없는 그 경계는 정래동 자신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 3.2.3 김광주 번역의 특징

제2장에서 살펴본 번역사례 중 김광주의 오역은 총 18개이며 이는 60%를 차지한다. 김광주의 오역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를 합한 총 오역 사례 중 44%를 차지함으로써 세 명 중 오역이 가장 많다. 과잉번역이 김광주의 번역특징이며 이는 다양한 부사어와 의성의태어의 반복적인 나열로 나타난다. 번역사례 중 “闲话休题言归正传”에 대한 김광주의 문장 끊기 실패는 그의 어학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전문학의 대가인 양백화와 소싯적부터 한문을 배우고 일본유학과 중국유학을 통해 한중영일 4개 국어를 배운 뒤, 스스로 한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67) “魯迅의 白話는 같은 白話이면서 도리혀 容易한 文言보다 了解하기가 어려운 白話文이다”(丁來東,「中國 短篇小說家 魯迅과 그의 作品 - 그의 時代는 지냇는가」(一八),)

관련 공부를 더했다는 정래동의 일화와 비교되기도 한다.

반면에 “转折亲”, “老婆”, “赤着膊”, “跳井” 등 단어에 대한 중국현지인 못지않은 정확한 의미 파악은 김광주의 뛰어난 중국어실력을 보여준다. 원문에 대한 과감한 삭제와 의도적인 오역은 김광주의 번역관이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郭沫若의 “번역도 창작이다” 라는 번역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굳이 서구 번역이론에 적용시키자면 김광주가 선택한 번역전략은 자국화(foreignization[168])이다.

김광주는 20살이 되던 1929년 3월 맏형 金東洲가 경영하던 浦利병원 소재지 吉林省에 도착하였다.[169] 형님의 집에서 3~4개월 머물면서 형수와 가정교사에게 중국어를 배우던 중, 형과 형수의 권유로 의학공부를 하기 위해 그 해 여름 上海로 떠난다. 김광주는 南洋醫科大學에서 학업을 시작하지만 의학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상하이에 머물고 있던 金明水와 가까이 지내면서 문학에 빠졌다. 중국어를 늘리기 위해 魯迅, 郁達夫, 巴金, 郭沫若 등 당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으며 중국어공부를 했고 상하이에서 머무는 동안 중국인 陸頌亞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 창작을 시작했다. 육송아는 김광주가 신문사 편집부에 원고를 송부하기 전에 꼼꼼히 교열을 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문에 등재된 김광주의 중국어 기사에 대해서도 일일이 중국어 표현의 우열을 점검해주었다고 한다. 상하이시절을 포함한 16년의 중국 현지체험은 김광주의 중국어 어학실력 향상에 크게 작용했다.

---

168)‘domestication’과 ‘foreignization’개념은 Venuti(1995)가 제안한 것으로, 번역사에 따라 ‘자국화’와 ‘타국화’, ‘자국화’와 ‘이국화’로 번역하기도 하며, 중국에서는 이를‘歸化’와 ‘異化’라고 번역한다.

169) 金光洲가 중국에 들어간 연도는 그가 1965년 『世代』에 발표한 「上海時節回想記」에 “二0부터 三0까지 꼭 十여年 동안을 나의 상해시절이라 할 수 있고 보면, 가장 젊은 시절이요”, “서울서 자라난 二0세의 少年인 나와 三0前後부터 滿洲로 망명하여 日帝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살아가고 있던 東洲兄 과는 十五, 六년동안이나 生死를 모르다가 이 病院에서 劇的 相逢을 했다”라고 밝힌 점을 미루어 볼 때, 20세 가 되던 1929년에 중국에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박남용·윤은혜, 「金光洲의 중국 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中國硏究 第47卷』, 2009, p.135.에서 재인용)

# 제 4 장 결론

본 논문은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초기 중한번역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최초의 역자 양백화(梁白華), 정래동(丁來東), 김광주(金光洲)에 대한 연구 성과 되짚기와 그들의 성장과 교육과정, 번역활동 등에 대한 전기적 고찰을 통해 「阿Q正傳」의 한국 초기 번역가의 생애와 이력을 재조명하였다.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는 한국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魯迅소설 초기 번역가이기에 관련 연구를 통해 격변기 속의 한중 현대문학 초기 번역의 전반적인 수준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번역가의 생애와 이력이 번역특징으로 나타나므로 본고에서는 한중일 격변기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사상적 궤적, 언어적 측면에 주목하여 선구자이자 번역가로서의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밖에도 실증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기존 전기적 서술 중의 오류를 찾아 향후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기들 기대하면서 이들 번역가의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의 「阿Q正傳」 번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능한 번역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먼저 분명한 오역 즉 번역의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번역차이의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로부터 번역의 문제점에 대한 일정한 유형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Q정전」 초기 번역가에 대한, 특히 김광주에 대한 번역 관련 평판이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보다는 사후적 구성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김광주의 「아Q정전」 번역에 대한 총 570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연구 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백화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정래동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김광주의 번역을 중심으로 한 검토 등 세 가

지 검증 방식을 병행하여 추출검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魯迅의 「阿Q正傳」을 두고 양백화의 魯迅 읽기와 정래동의 魯迅 읽기, 김광주의 魯迅 읽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번역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가 번역한 魯迅의 「阿Q正傳」은 더 이상 魯迅의 전하고자 하는 아Q가 아니라 세 번역가의 魯迅 읽기에 본인의 삶으로 아Q의 삶을 이해하기가 덧붙여져서 다시 독자에게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양백화, 정래동, 김광주 만의 색을 입힌 아Q였던 것[170]이다. 이를 일컬어 슐러이어마허는 번역이라는 '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일과 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일[171]' 이 정작 도착한 곳은 역자들의 주관이 개입된 낯선 곳[172]이라 표현했고 폴 리쾨르는 번역을 '독자와 저자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일' 인즉,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애도의 작업' 이란 용어를 빌려와 '이국적인 것(외국어)' 을 가벼이 여겨 지나치게 모국어에 집착하는 태도, 그리고 완벽한 번역을 지향한 나머지 '제3의 언어' 에 애착을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모두 '애도의 작업[173]' 이 필요하다고 했다. 번역학에서 애도의 작업이란 한마디로 완벽한 번역에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174]으로 폴 리쾨르는 오로지 애도의 작업을 통해서 독자와 저자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폴 리쾨르의 이론을 빌리자면 양백화와 정래동, 김광주 세 번역가 중에 성공적으로 애도의 작업을 마친 역자는 양백화였다.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위하여 양백화는 形을 넘어 神까지 닮고자 하였으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이르러서는 '原意를 傷치 않도록 意譯을 試' 했던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저자를 섬길 생각이 없어보였던 김광주와는 경우가 다르다. 김광주는 '北永吉里 10號' 을 '中心地처럼, 센터처럼[175]' 이라

---

170) 이는 번역주체를 정래동과 김광주로 바꿔도 마찬가지다. 魯迅에게 다가가기란 결국 정래동 혹은 김광주가 읽기와 이해하기를 거쳐 도착한 그들만의 아Q인 것이지 이미 魯迅의 아Q는 아닌 것이다.

171) 폴 리쾨르 지음,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철학과 현실사, 2006), 84쪽.

172)

173) 위의 책, 84쪽.

174) 폴 리쾨르 지음,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철학과 현실사, 2006), 84쪽.

표현하였고 陸松亞에 대해 '훌륭한 스승이오, 은사였다'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심지' 가 바로 '센터' 이고 '훌륭한 스승' 이 바로 '은사' 인 것을, 김광주는 같은 표현이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직성이 풀렸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예컨대 상하이의 언어를 김광주는 '그 깡충깡충 뛰는 것 같이 방정맞은 上海말[176]' 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어낸 말이라도 생동감을 살리는 데는 제격이었다. 이는 휴고의 '작가이면서 번역가인 사람들은 종종 정반대의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원문의 양식을 지키지 않고 향상시키려는 것[177]' 이란 주장과 일치하다. 따라서 김광주의 아Q가 魯迅의 아Q와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작가이자 시인이자 보헤미안으로 16년간의 중국 생활을 거쳐 뛰어난 백화실력을 갖고 있었던 김광주의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반면에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버리지 못하여 '애도의 작업' 에 실패한 번역가는 정래동이었다. 축자역이 原意를 傷할까 꺼렸던 양백화와는 달리 정래동은 언어의 不可譯性에 이르러 충실성을 우선시하여 독자와 저자사이에 축자역을 써서라도 저자에게 다가가기를 지향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백화는 개항기, 일제강점기의 문인으로 초기에는 양계초의 계몽의식의 영향을 받았다. 양백화의 고전문학의 번역원칙은 嚴復의 信・達・雅를 계승하였고 중국 속문학 번역과 신문학 관련 소개 및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胡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학창작 및 번역을 통해 중국문학과 서구의 근대사상에 대한 번역수용을 통해 희곡, 소설, 시, 철학, 평론, 문체 등 거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조선 시대 대중에 대한 계몽에 힘쓰고자 하였다. 後期에는 백화문이라는 언어적 장벽과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와 조우하여 질환을 앓다가 잊혀진 존재였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기에 외로운 삶이었다. 번역에 관해서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에 대한 유창성을 아울러 고심하였고 중역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정래동은 北京이란 공간에서 아나키스트들과 교유하며 한중영일 4개 국어라는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중국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175) 김광주, 「上海時節回想記<上>」(1965), 248쪽, 270쪽.
176) 김광주, 위의 책, 251쪽.
177) Schulte, Rainer., and John Biguenet, editors,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논선》, 30쪽.

대한 배움과 번역소개를 병행하였다. 정래동은 嚴復의 信・達・雅를 번역원칙으로 삼았으며 「아Q정전」에 대한 완역을 하지 못해 결국 축자역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유감을 남겼다. 上海라는 공간에서 격변기를 보낸 김광주는 중일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기타 번역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역자에 비해 왕성한 중국어 창작활동과 16년이란 현지체험 경력은 김광주의 번역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예술가의 영혼을 지녔고 근대 중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번역관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에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제약에서 자유로웠다. 김광주는 탁월한 現代白話 실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意譯을 진행하였기에 세 번역가 중에서는 원작의 의도와 거리가 가장 멀었다. 개항기에 태어나 기타 역자보다 한문 실력이 탁월한 양백화, 서당식 교육과 근대교육, 일본유학과 중국유학을 두루 경험했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울러 배우고자 했던 정래동, 16년의 중국생활로 백화문에는 뛰어났지만 한문 실력이라는 한계를 지닌 김광주, 세 번역가의 번역 작품 선정, 번역 특징의 차이에는 장소와 시간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원전


魯迅, 「阿Q正傳」,『吶喊』, 北京新潮出版社, 1923.

———, 『魯迅全集 v1.』, 人民文學出版社, 1991.

———, 『魯迅全集 v12.』, 人民文學出版社, 1991.

———, 『魯迅全集 v13.』, 人民文學出版社, 1991.

———, 『魯迅全集 v16.』, 人民文學出版社, 1991.

———, 『魯迅全集』, 人民文學出版社, 2005.

許壽裳, 『亡友魯迅印相記』, 上海書局, 1974.

井上紅梅,「支那革命畸人傳」,『奇譚』2卷11號, 1929.

復旦大學・上海師大・上海師院『魯迅年譜』編寫組,『魯迅年譜』(上冊), 安徽人民出版社, 1979.

———,『魯迅年譜』(下冊), 安徽人民出版社, 1979.


## 2. 단행본


魯迅, 「狂人日記」, 『新青年』, 1918.

———, 청원(青園, 유수인) 역, 『광인일기(狂人日記)』,

———, 김시준 역 『루쉰 소설 전집 1』, 서울: 중앙일보사, 1989.

———, 이주노 역 『루쉰의 광인일기, 식인과 광기』, 서울: 21세기북스, 2019.

臧克家 著, 時代文藝社 編, 『臧克家全集』,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2.

嚴良才 저, 정래동 역, 「最後의 慰安」, 『문장』1(10), 1939.

鄭振鐸, 『中國俗文學史』(上), 上海書店, 1984.

김광주, 「上海時節回想記<上>」(1965).

김종회, 『그들의 문학과 생애, 박태원』, 서울: 한길문학사, 2010.
남윤수・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v1.』, 강원대학교출판부, 1995.
————————————, 『양백화 문집 v2.』, 강원대학교출판부, 1995.
————————————, 『양백화 문집 v3.』, 강원대학교출판부, 1995.
루쉰(魯迅), 김태성 역, 『아Q정전』, 서울: 열린책들, 2011.
————————, 전형준 역, 『아Q정전』, 서울: 창비, 2006.
————————, 루쉰전집번역위원회(공상철·서광덕)역, 『루쉰전집2권』,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8.
무정부주의운동사편전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서울: 형설출판사, 1978.
박일영, 「나의 아버지 박태원과 삼국지」, 『신역 삼국지』, 서울: 깊은샘, 2008.
이상은, 「序」, 『정래동전집』 Ⅱ－평론편, 서울: 금강출판사, 1971.
정래동, 『정래동전집』(제1~3집), 서울: 금강출판사, 1971.
폴 리쾨르 지음, 윤성우·이향 옮김, 『번역론』, 철학과 현실사, 2006.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엮음, 이재성 옮김, 『번역이론: 드라이든에서 데리다까지의 논선』, 동인, 2009.

## 3. 논문

金光洲, 「中國文壇의 現勢 一瞥: 1年間의 論壇・創作界・刊行物界 等(四)」, 『동아일보』, 1935.2.8.
————, 「上海를 떠나며: 流浪의 港口에서」, 『동아일보』1938.2.18.
金兰, 『鲁迅『阿Q正传』的朝（韩）语译介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06년.
徐静静, 『「阿Q정전」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고찰』,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韩银华, 『「阿Q正传」与三个韩译本对比分析』,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李光洙, 「梁建植君」, 『開闢』 제44호, 1912.
李昇遠, 「舊韓末 西歐 敎育思想의 受容過程 硏究-媒介者로서의 梁啓超를 중심으로」, 『敎育史學硏究』제1집, 1988.
李錫浩 , 「中國文學 轉信者로서의 梁白華: 特히 中國 戲曲의 紹介 飜譯을 中心으로」, 『延世論叢 Vol13, 1976.
張博文, 『중한 문학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阿Q정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朱湘, 「葬我」, 『草猛集』, 1927.
丁西林 저, 정래동 역, 「버얼」, 『동광』 37호, 1932.
臧克家 저, 정래동 역, 「落葉줏는處女」, 「中國新詩選譯」, 『중앙』 제1권 12호, 1933.
魯迅 著, 金光洲 譯, 「행복된 가정」, 『조선일보』, 1933
———, 著, 金光洲 譯, 「술집에서(在酒樓上)」, 『제일선(第一線)』 3권1호, 1933.
梁白華, 「筆談하다 대실수」,『梁白華文集 3』(산문 · 평론), 33쪽
———, 「林紓」,『梁白華文集 3』(산문 · 평론), 329쪽
梁晓茹, 「胡適翻譯思想硏究」,碩士學位論文,河北大學, 2009.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3.1운동이전까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12, 1989.
김명섭,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史學志 Vol.52』, 2016.
김병순, 「양건식의 명청사대소설 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영금, 「백화 양건식 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김영숙, 「백화양 건식의 琵琶記 번역연구」, 『中國語文論叢』 제89집, 2018.
김종진, 「근대 불교잡지와 번역문학 『불교』지를 中心으로 」, 『동악어문학』(79), 2019.
김철, 「상하이 신보(晨報)문예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영화소개 및 비평에 대한 소고」, 『아시아문화연구』제45집, 2017.
김효민, 「梁建植과 西廂記 小考」, 『中國語文論叢』 제80집, 2017.
동신, 「양건식의 중국어 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민병욱, 「양백화의 비평담론 연구」, 『비평문학』 제31호, 2009.
박남용 · 박은혜, 「金光洲의 중국체험과 중국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중국연구』 제47권, 2009.

박남용・윤혜연, 「일제시기 중국현대소설의 국내 번역과 수용」,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4집, 2008.
박남용・임혜순, 「일제시기 중국 현대희곡의 국내 번역과 그 특징 연구」, 『중국학연구』, 제50집, 2009.
박재연, 「양백화의 중국문학 번역 작품에 대한 재평가」, 『중국학연구』 제4집, 1988.
박진영, 「중국문학의 발견과 전문 번역가 양건식의 초상」, 『근대서지』 제10호, 2014.
———,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번역가 양건식과 박태원의 원근법」, 『동방학지』 제166집, 2014.
———,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성립의 기원과 역사성」, 『탈경계인문학』 Vol. 2014.
———,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제55집, 2014.
백은희, 「중한번역에 나타나는 오역의 유형 분석」, 『中國學報 第四十七號』, 2001년.
서경민, 「梁白華의 중국현대문학 수용과 번역에 대한 연구-현대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서문첩, 『中韓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연구-“阿Q정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년.
손염홍, 『1920년대 전반 북경지역 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3.
서경민, 「일제 강점기 재중국 유학생을 통한 지식 교류와 김광주 문예활동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제70호, 2021.
———, 『梁白華의 중국현대문학 수용과 번역에 대한 연구──현대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서화, 『魯迅 “阿Q정전“ 벅역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성현자, 「백화 양건식의 중국신문학운동수용연구」, 『비교문학』 24, 1999.
송인재, 「1920~30년대 한국 지식인의 중국 신문화운동 수용 양건식, 정래동, 김태준의 경우」,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3집, 2015.
왕녕, 『식민지시기 중국 현대문학 번역자 양백화, 정내동의 역할 및 위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왕성, 「중국 현대문학 번역에 나타난 양건식의 문학관- 『탁문군』・『반금련』 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6, 2012.
왕철, 『백화 양건식의 번역문학- ‘중국신문학운동’ 번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요위위, 『양백화 번역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유봉희,「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진화론 수용의 계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소설」,『한국학연구」제51집, 2018.
유임하, 「해금조치 30년과 근대문학사의 복원」, 『泮橋語文硏究』 제50집, 2018.
이상덕, 「梁白華의 빨래하는 처녀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제44집, 2014.
이석호, 「중국문학 전신자로서의 양백화-특히 중국 희곡의 소개번역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제13집, 1976.
이애란, 『박태원의 중국 고전 번역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0.
이재령, 「20세기 초반 在中留學生 丁來東의 신문학 인식과 전파」, 『歷史學硏究』 제82집, 2021
이지은, 「梁白華의 『長生殿』 飜譯 初探」(『中國語文論叢』 제46집, 2010.
정래동, 「내가 大學을 卒業하던 때」, 『정래동전집Ⅲ· 창작·번역편』, 금강출판사, 1971.
전기정,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 전략-阿Q정전“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51號, 2008.
정선경, 「근대시기 양건식의 중국 고전소설 번역 및 수용에 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73, 2012.
———, 「양백화의 번역활동과 번역의 의의」, 『中國語文學論集』, 第115號, 2019.
———, 「양건식의 중국신문학운동 수용과 번역의 태도」, 『중국어문학논집』 79, 2013.
조문제,「韓末의 日語學校敎育의 硏究-서울의 官立日語學校를 中心으로」, 『논문집』, 1977.
최용철, 「양건식의 홍루몽 평론과 번역문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6권, 1993.
———,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연구사 장편』(26), 1996.
———, 「胡適에게 보낸 梁白華의 書信에 대하여」, 『中國小說硏究會報』 제91호, 2013.
———, 「조선시대 『삼국지』와 『홍루몽』의 수용방식 비교」, 第78輯, 2016.
———,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28집, 1996.
홍상훈, 「梁建植의 『三國演義』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제

14집, 2005.
홍석표, 「譯述의 번역 관습과 근대적 번역관습의 충돌」, 『중국문학』 第75輯, 2015.
———,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소설의 의의」, 『中國文學』 第87輯, 2016.

# Abstract

## Study on Earlier Korean Translation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With Yang Baek Hua, Jeong Rae Dong and Kim Kuang-Ju's translation of *The True Story of Ah Q* as the study case

Piao chunxiang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roblems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ree Korean versions of *The True Story of Ah Q*, a masterpiece of Lu Xun. As previous studies on Korean translation of this book mostly focused on versions after the 1960s with rare attention paid to those in earlier periods, this paper selected Korean versions completed by Yang Baekhwa, Jeong Raedong and Kim Kwangju as the research objects. With drastic social changes of Korea, China and Japan at that time taken into account as the background,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translation career of the above-mentioned three translators, so as to discover the translation problems available in earlier Chinese-Korean translations of Lu Xun's novels, and to look into the bigger picture of Chinese-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fter that, the paper further explored how translation concepts

accepted by the above-mentioned three translators influenced their translation work of Chinese literature, which were Liang Qichao's enlightenment consciousness and Yan Fu's translation criteria "faithfulness, expressiveness and elegance", loyalty to the original text and foreignization, as well as the preference for domestication respectively. Based on empirical resources, the paper probed into the incorrectness in previous studies to provide important references for future studies.

Besides, the author conducted specific case studies on the three translation versions. While ensuring translatability and diversity, the author first identified obvious mistransla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three versions, then classified these mistakes to summarize problems existing in earlier Korean translation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The paper elaborated on how different translation principles can influence the choices in translation. Considering the comments on Kim Kwangju's translation mostly originated from anecdotes and hearsays, 570 translation cases of Kim Kwangju were analyzed to make up for the lack of empirical materials. Besides, three rounds of observation which were respectively centered around each translator were conducted, so as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results.

Yang Baekhwa, who was proficient in classical Chinese, inherited Yan Fu's translation criteria "faithfulness, expressiveness and elegance" in the translation of classical Chinese, and intimidated Hu Shi's style when translating vernacular Chinese. Jeong Raedong was fluent in both classical Chinese and vernacular Chinese. As he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faithfulness" in Yan Fu's translation, he tended to adopt literal translation. As for Kim Kwangju, 16 years living in China cultivated his expertise in vernacular Chinese and boosted his preference for domestication. Ultimately, the differences in the choices of translation subject and translation features among the three translators resulted from the contemporary background and their translation viewpoints. In this sense, in terms of enlightenment, Yang Baekhwa was the best in restoring Lu Xun's ideas. When it

came to loyalty, Jeong Raedong excelled, and Kim Kwangju was the most expressive one in creating the atmosphere of “desperation”.

keywords : Chinese-Korean translation, Lu Xun, The True Story of Ah Q, Yang Baek-Hua, Jeong Rae-Dong, Kim Kuang-Ju

*Student Number* : 2013-22428